

#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강 만 익\*

- I. 머리말
- II. 한라산 상산방목지의 환경특성
- III. 문헌자료에 나타난 상산방목
- IV.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 V. 맺음말

## 국문요약

1970년에 국립공원,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목축민속 그리고 다양한 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이 연구는 근현대 제주지역 한라산 아고산지대에서 이루어진 상산방목을 주제로 한 한라산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접근의 하나에 해당된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의 상산방목은 농촌마을 촌로들만 기억할 뿐 논문형식의 학술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산방목은 백록담 부근 해발 1400~1950m에서 이루어진 아고산지대 목축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목축민속이었다.

상산방목이 이루어진 한라산의 목축지로는 백록담 남쪽의 선작지왓, 움텃밭, 백록담 북서쪽의 사제비~만세동산, 큰두레왓, 가메왓, 개미등이 있었다. 목축민들은 여름철 파종을 마무리한 후 일정한 날을 정해 백록담을 랜드마크로 삼아 우마를 올렸다. 이곳에는 마을과 상산방목지를 연결하는 상산방목로가 존재했

---

\* 제주대 강사.

다. 상산방목은 계절적 방목이면서 이목(移牧)에 해당되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지, 물, ‘궤’가 필요했다. 초지와 물은 우마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요소였으며, 특히 ‘궤’는 소규모 자연동굴로, 방목우마를 관리하는 테우리(목자)들의 임시 거처로 이용되었다.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에서 원하는 목축민이면 누구나 상산방목지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상산방목은 대체로 제주도 남북부 지역인 제주시 동지역(구, 제주시)과 애월읍 광령리 그리고 서귀포시 중문동~하효동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산방목지는 해발고도가 높아 서늘하여 진드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방목지로 선호되었다. 다만 수시로 변동하는 일기변화와 많은 비바람은 어린 송아지와 망아지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목축민들은 대체로 우마들을 절기상 청명일을 전후해 상산으로 올린 다음, 상강일 경에 상산에서 마을로 이동시켰다. 상산방목은 상산으로 우마 올리기, 방목하기, 데려오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방목기간은 5개월 정도였으나, 마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상산에 처음으로 방목을 하거나 방목 중 잃어버린 우마를 찾으려 할 때 마른 옥돔과 양초 등을 준비해 고사를 지냈으며, 우마에 낙인과 귀표를 한 다음 방목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가정책에 의해 국립공원 내 방목이 전면 금지되면서 상산방목 민속은 소멸되고 말았다.

주제어 :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상산방목, 상산방목지, 아고산지대, 목축문화, 테우리(목자), 낙인 상산방목로, 목축민속.

## I. 머리말

한라산(1950m)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목축민속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그 동안 한라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인문학 분야에서의 접근은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근현대 한라산 아고산지대에서 제주도 목축민들이 행했던 이른바 ‘상산방목’이라는 목축민속을 역사민속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라산은 200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산으로, 제주인들과 일상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특

히 한라산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간 자연초지대(해발 200~600m)는 근현대 제주인들이 목축과 화전농을 영위했던 지리적 토대이기도 했다. 이곳을 배경으로 일제시기에는 100여 개의 마을공동목장이 운영되었으며<sup>1)</sup>, 백록담 아래의 아고산지대는 우마를 방목하는 장소로 일찍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이곳에서는 이른바 ‘상산방목’으로 알려진 목축이 행해진 것이다. 이 방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에서 행해진 목축적 토지이용이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상산방목’이란 제주지역 목축민들이 여름철 해발 1300~1400m 이상의 아고산지대에 해당하는 ‘상산’에서 행해졌던 우마방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용어는 제주도민들이 상산에 소를 올려 방목했던 목축민속에 착안하여 연구자가 처음으로 명명한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상산방목의 존재에 대해서는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목축민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상산방목의 실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보호를 이유로 상산방목이 금지됨에 따라 상산방목이라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전통적 목축민속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지대(아고산지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개된 상산방목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소멸된 제주지역 전통적 목축민속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상산방목의 주체들이 대부분 70~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산방목 목축민속에 대한 전통지식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목축은 초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초지가 발달된 강원도 평창과 태백을 중심으로 한 고위평탄면 지역과 전라북도 진안고원 및 제주지역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민속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성과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목축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1)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朝鮮印刷株式會社, 125쪽; 高野史男(1996), 『韓國濟州島』, 中公新書, 107-109쪽.

다음과 같다. 먼저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1966)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방목형태를 종년방목, 계절적 방목, 전사(全飼)로 구분해<sup>2)</sup> 종년방목이 제주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목형태라고 주장했다. 고광민(1996, 1998)은 테우리<sup>3)</sup>들의 목축의례인 ‘테우리 ㄱ사’에 주목하여 테우리들이 백중날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준비하여 마을공동목장이나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서 제사지냈음을 밝혔다.<sup>4)</sup> 또한 제주시 영평마을·소길마을과 서귀포시 색달마을의 목축사례를 통해 ‘꽃치기’와 ‘번치기’라는 목축방법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sup>5)</sup> 『제주도민일보』(2010~2011)를 통해 방앓불 놓기, 바령쇄, 꽃쇄, 번쇄 방목 등 목축민속에 대해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낙엽수림대에서 연중 방목되는 꽃쇄[野牛]들이 겨울철에는 해발 400~600m 부근의 ‘월동장’(越冬場) 그리고 여름철에는 해발 900~1300m 부근의 ‘월하장’(越夏場)을 왕복하며 방목되었음을 밝혔다. 이영배(1992, 1993)는 각 마을과 가문별로 이루어졌던 우마 낙인에 주목해 낙인의 자형(字型)에 대해 현장조사를 토대로 밝혔다.<sup>6)</sup> 좌동렬(2010)은 전근대 제주지역의 다양한 목축의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의 관점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낙인코시, 귀표코시, 밧날리는 코시,

2) 泉靖一(1966),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94-101쪽. 여기서 종년방목이란 연중 방목을 의미하며, 계절적 방목은 봄부터 가을(4월~10월)까지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다음, 겨울이 되면 마을로 우마를 데려오는 목축형태이며, 전사(全飼)란 집에서 연중 사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3) 테우리는 본래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 말은 ‘모오다’는 뜻을 가진 중세 몽골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주장이 있다(박원길, 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탐라국 독립성 상실 900년 회고』, 사단법인 제주학회, 72쪽). 무리를 지어 방목되는 ‘마소 떼의 우두머리(馬群頭)’라는 의미도 담겨있다(金仁顯, 2006, 『韓國 濟州 歷史·文化學』(下), 西歸浦文化院, 544-545쪽).

4) 고광민(199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318-319쪽.

5) 고광민(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꽃치기’란 삼림 속에서 우마를 놓아기르는 방목형태이며, ‘번치기’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마소를 돌보는 방목형태를 의미한다.

6) 이영배(1992),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Ⅰ)』, 『조사연구보고서』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3,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Ⅱ)』, 『조사연구보고서』 제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백중의례의 가치를 강조했다.<sup>7)</sup> 연구자(2010)는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 행해진 상산방목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sup>8)</sup>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처럼 전통사회에서 제주지역은 사람보다는 말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시기까지도 이어져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사(濟州島司)에 지시해 제주지역 중산간 지대(해발 200~600m)를 중심으로 마을공동목장을 만들어 마을단위로 축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요구했다.<sup>9)</sup> 그러나 당시 공동목장은 우마의 방목료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는 대부분 공동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무료로 방목할 수 있는 목축지가 있었다. 한라산 백록담 아래 형성된 환경사의 ‘고산초원’이 바로 그곳이었다. 이곳을 제주지역 목축민들은 ‘상산’(上山)이라고 불렀으며, 지리적으로 볼 때 대체로 해발 1400~1950m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 글에서는 역사민속학의 관점에서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현재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한라산 아고산지대 상산방목 전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산방목의 지리적 환경, 문헌 자료에 나타난 상산방목,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과정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문서를 토대로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상산방목 금지에 대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검토했다.

한라산 상산방목지에 대한 현지답사는 5회(2012년 10월 13일, 11월 3일, 11월 18일, 2013년 4월 13일, 6월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sup>10)</sup> 아울

7) 좌동렬(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8) 강만익(2010),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① 下孝마을의 事例』, 『濟州學』 제6호(겨울), 제주학연구소, 도서출판 세립, 78-90쪽.

9) 일제시기 마을공동목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필자(2008)의 『1930년대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 설치과정연구』(『탐라문화』 제3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가 참조된다.

10) 상산방목지는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 내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대한 현지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학술조사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의 노인회관을 방문해 상산방목을 직접 경험했던 목축민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근현대 시기 제주지역 여행기 및 문학작품에 등장한 상산방목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해 상산방목의 등장모습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의 전통적 상산방목 모습을 재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한라산 상산방목지의 환경특성

### 1. 상산방목지의 자연환경

상산방목지(해발 1400~1950m)의 자연환경은 백록담, 오름(측화산)과 하천(계곡), ‘케’(바위굴), 샘 등의 지형환경 그리고 완경사의 초지대, 구상나무, 누운향나무, 제주조릿대, 고산식물인 시로미 등의 식생환경, 여름철 서늘하고 비바람이 많은 기상환경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오름, 하천, 초지대, 구상나무, 샘은 방목했던 우마에게 그리고 케, 시로미, 샘은 방목우마를 관리했던 테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상산방목은 초지와 물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케(바위굴)가 삼위일체 되어야 가능했던 목축민속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상산방목 기간과 그 공간적 범위를 결정했던 한라산 아고산지대의 자연환경과 각 방목지의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다.

먼저 상산방목지에는 한라산의 최고봉인 백록담이 있다.<sup>11)</sup> 백록담 분화구 내부에는 초지와 물이 있으며, 이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방목 중이던 우마들이 분화구 속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백록담 부근의 오름(측화산)들은 대부분 백록담 화구호 형성을 전후해 용

11) 백록담은 약 16만 년 전에 제주도 중앙부에서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용암원정구(lava dome)가 형성되고, 2만 5천 년 전에는 용암원정구에서 다시 현무암이 분출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東西 직경 650m,南北 직경 432m, 둘레 1,720m, 깊이 110m, 면적 21ha(63,000평) 규모에 해당하는 화구호(火口湖)이다.

<표 1> 상산방목지의 오름(축화산) 분포

지역	명칭	위치	이용
제주시	장구목	오라동 산107	광령리 우마방목지
	큰두레왓		제주시 노형동과 오라동 공동방목지
애월읍	윗세상봉(붉은오름)	광령리 산182-1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해안동과 노형동, 오라동 공동방목지
	윗세중봉(누운오름)	광령리 산183-1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계에 해당
	윗세하봉(죽은오름)		광령마을 방목지
	만세동산		광령마을 방목지
	민대가리오름		사제비 샘
	사제비오름		삼정물, 1970년대까지 방목
	젓방오름[망제오름]		서귀포시 하원동과 애월읍 광령리 주민 공동방목지
	어슬렁오름		
서귀포시	백록담	토평동 산15-1	토평동 및 여러 마을 공동방목지
	웃방에오름	동홍동 산1	방에오름샘 이용한 방목
	방에오름		호근동, 상효동, 토평동 공동방목지
	알방에오름		하효동, 토평동 공동방목지

\* 자료 : 양송남, 『양송남의 40년지기, 漢拏山 이야기』, 2010, 191-193쪽에서 발췌.

암분출로 만들어진 독립화산체이다(표 1).

이 중 윗세오름을 비롯한 10여 개의 오름들은 대부분 스코리아(Scoria, ‘송이’)로 이루어진 분석구에 해당된다.<sup>12)</sup> 해발 1,400m의 사제비 오름부터 1,600m의 만세동산, 민대가리 오름 및 1,800m의 장구목 오름 일대의 남서사면에는 현재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다.<sup>13)</sup> 오름의 정상부는 평지보다 바람이 강하고 토양층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본류 대신에 초본류가 우점해 있다.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오름들은 우마들을 관찰하는 ‘망동산’ 역할을 했다. 윗세 상봉(붉은오름)~윗세 중봉(누운오름)~윗세 하봉(‘죽은’오름)은 동서 방향의 구조선 상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된 오름으로, 현재 산북지역(제주시)과 산남지역(서귀포시)을 구분하는 행정구역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윗세 중봉(누운오름) 앞

12) 김태호(2006),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나지의 확대속도와 침식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658쪽.

13) 김태호(2010), 『한라산 아고산대에서의 사면 물질이동』,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376-377쪽.

&lt;표 2&gt; 상산방목지대에 위치한 켜

지역	명칭	위치
제주시	윗상켄	장구목 남서사면 구상나무 숲 내
	통켄	오등동 왕관릉 동쪽 인근
	흑켄*	개미목 남동사면
에월읍	상켄(황켄)	만세동산(오름) 부근
	산물상켄	에월읍 광령리 산183-1 내 산근악 부근
서귀포시	탐켄	도순동·영남동 선작지왓 내
	등터진켄	백록담 동릉 사면
	움텅발 내창켄	움텅발 내창(하천)
	평지켄	돈네코 등반로입구에서 5.3km 지점

\* 자료 : 양송남의 『양송남의 40년지기, 漢擎山 이야기』(2010)와 현지답사 자료를 통해 작성함.

\*\* 흑켄에 대해서는 『오등동향토지』(2007:169)에 개미목 동쪽편 하천 중간 므르(언덕)에 흙으로 형성된 10여평 규모의 켄라고 기록하고 있음)

에 위치한 대피소는 영실 등반로와 어리목 등반로 및 돈네코 등반로의 교차점이다. 한라산 남벽 기저부를 따라 위치한 윗방애오름~방애오름~알방애오름 등측 기저부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상산방목지에는 ‘켄’들이 있다. ‘켄’은 산 정상부에서 흘러내린 용암류(lava flow)의 표면 아래에 형성된 소규모 바위동굴로, 우마를 올린 목축민(테우리)들이 임시거처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방목에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였다. 다시 말하면 ‘켄’은 테우리들이 비바람을 만나거나 상산에 올린 ‘췌’(소)를 찾으러 왔다가 불가피하게 상산에서 잠을 자야할 경우 비바람을 피하는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표 2>는 상산방목지에 존재하는 ‘켄’들을 나타낸 것으로, ‘켄’들은 테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요, 목축의례 장소였으며, 상산방목지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 중 ‘탐켄’은 ‘선작지왓’ 내<sup>14)</sup> 그리고 ‘등터진켄’은 백록담 동릉부 해발 1,750m에 위치하고

14) 이것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이 마치 탐처럼 쌓여 형성된 것으로, 선작지왓 내 해발 1,645m에 위치한 탐켄은 그 높이가 2.6m, 폭이 6.6m에 이르러, 안쪽으로 들어간 깊이는 4.3m 정도이며, 선작지왓을 방목지로 활용했던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목축민들이 주로 활용했다. 현재는 제주조릿대가 성장하면서 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림 1> 등터진케(2012. 11. 3)



<그림 2> 움텅발 내창케(2012. 11. 18)

있으며, 케의 등 가운데 구멍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그림 1).<sup>15)</sup>

등터진 케는 맑은 날 서귀포시 하원동·신희동·하효동과 토평동·상효동 테우리들이 이용했다. 그러나 이 케는 전면부가 노출된 형태여서 비바람이 불 때는 이용되지 못했다. 반면, 돈네코 등반로 입구에서 5.3km 떨어진 해발 1,450m 부근에 자리 잡은 ‘평지케’는 산남지역 테우리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했던 것으로, 현재는 무인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다. 평지케에 올라서면 한라산 남벽이 보이기 때문에 목축민들은 이 케를 상산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인식했다. ‘움텅발 내창케’는 한라산 남벽에서 발원하는 해발 1,650m의 영천(효돈천)에 형성되어 있으며, 경사급변점에 위치해 비가 올 때를 제외한 맑은 날 임시 거처로 이용되었다(그림 2). ‘통케’는 흙붉은오름(1391m)과 진달래발 대피소를 연결하는 해발 1550m 부근이 위치하며, 1895년 김희정(金義正)이 쓴 『漢拏山記』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비로소 구상나무숲 밖으로 나왔는데, 조릿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 석실(石室)이 하나 있었는데 통케(通怪)라고 하였다. 땅을 덮어 가린 활꼴 모양에 10여 사람을 수용할 만 하였는데 단지 하나의 입구로 통하고 바깥에는 이끼가 끼지 않았고 안에는 고인 물이 있는데 물맛이 맑고 차가웠다.<sup>16)</sup>

15) 등터진케의 높이는 1m, 폭 3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다. 탐케와 등터진케에 대한 측정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연연구원(2009)이 발간한 『한라산의 자연자원』(디자인 열림, 170-174쪽)을 참조했다.

16) 金義正(1895), 『漢拏山記』, 『海隱文集』, 백규상 역(2012),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 제41호, 제주발전연구원, 88쪽.



&lt;그림 3&gt; 백록샘(2012. 11. 3)



&lt;그림 4&gt; 방애오름 샘(2012. 11. 3)

상산방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다. 테우리들이나 우마들도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산방목지에서 우마와 테우리들은 용천수(샘)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표 3>에 표시된 사제비샘, 노루샘, 백록샘, 방애오름샘이 그것이다. 이곳 샘들의 일부는 여름철 빗물과 봄철 용설수(融雪水)가 토양층 아래에 저장되었다가 흘러나오는 물에 해당한다(그림 3, 4).

테우리(목자)들은 빗물에 의해 침식을 받아 생긴 우곡(雨谷, gully)이나 소규모 물웅덩이에서도 물을 얻었다. 방목지 내에는 응집력이 약한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곳이 빗물에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웅덩이들과 약 30cm 깊이의 우곡으로 흘러든 물이 가축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천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상산방목지는 지질적으로 볼 때 제주지역 주요 하천의 발원지에 해당되며<sup>17)</sup> 이곳의 하천들은 비록 비가 올 때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천(乾川)이나, 여름철 강수 직후에는 하상(河床)에 고인 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산방목지의 지형환경이 변화가 거의 없는 장기지속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곳의 기상환경은 해발고도가 높아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며 일교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대체로 4~6℃ 정도이며, 월평균기온이 5℃ 이상이 되어야 풀이 자라기 때문에

17) 이곳에서 시작되는 주요 하천으로는 산북지역 광령천, 도근천, 한천, 병문천 그리고 산남지역 도순천(강정천), 효돈천, 산동지역 천미천 등을 들 수 있다.

<표 3> 상산방목지에 위치한 용천수

용천수명	해발고도(m)	지질구조	평균유출량(m <sup>3</sup> /일)
사제비물	1,400	용암류경계형	500
용진굴물	1,418	용암류경계형	4,000
용진각물	1,507	용암류경계형	360
노루샘	1,666	사력층형	30
윗세물	1,668	용암류경계형	50
백록샘	1,675	용암류경계형	210
방아오름샘	1,683	용암류경계형	10

\* 자료 : 안중기 외, 2006, 『한라산의 하천』(한라산총서 Ⅷ),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41쪽. 이 밖에 장구목물과 민오름물이 존재하며, 이것은 『한라산의 자연자원』(제주특별자치도, 2009, 232~235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5월 이후가 되어야 상산방목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해발고도가 높아 지형성 강수가 자주 발생해 연간 강수량이 3,000mm 이상을 보여주어<sup>18)</sup> 한국 최다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 환경에 적응하다보니 이곳에 방목했던 우마들은 털이 길게 자라는 특성을 보였다. 수시로 발생하는 비바람과 안개는 방목우마들의 이동을 제한했고, 심지어 어린 가축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상산방목지대 중 백록담 남서사면에는 초지와 관목림(누운향나무, 털진달래, 주목)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상징인 구상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 제주조릿대 등은 이곳의 주요한 식생 구성요소에 해당된다.<sup>19)</sup> 특히 구상나무는 군락을 이루어 방목우마들에게 더위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제주조릿대는 그 뿌리가 토양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고산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sup>20)</sup> 조릿대는

18) 안중기·김태호(2006),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소유역의 물수지』,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404쪽.

19) 공우석(1998), 『한라산 고산식물의 분포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191~208쪽. 누향나무는 동사면 성관악 코스의 해발 1920m 부근에 우점하고 정상부근에서는 시로미, 구상나무, 털진달래 등과 섞여 살아간다. 시로미는 한라산 정상 일대 동서남북 모든 사면에 출현한다. 서사면 1600~1700m의 계곡 쪽에 구상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20) 김찬수·김문홍(1985), 『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 137쪽.

한때 우마 먹이로 이용되었으나 국립공원 내 방목이 전면 금지되면서 분포범위가 계속 고지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의 대표적인 고산식물인 시로미 등이 제주조릿대와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조릿대는 제주어로 ‘ㄱ대’라 하며, 1723년 『경종실록』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sup>21)</sup>

## 2. 상산방목지별 장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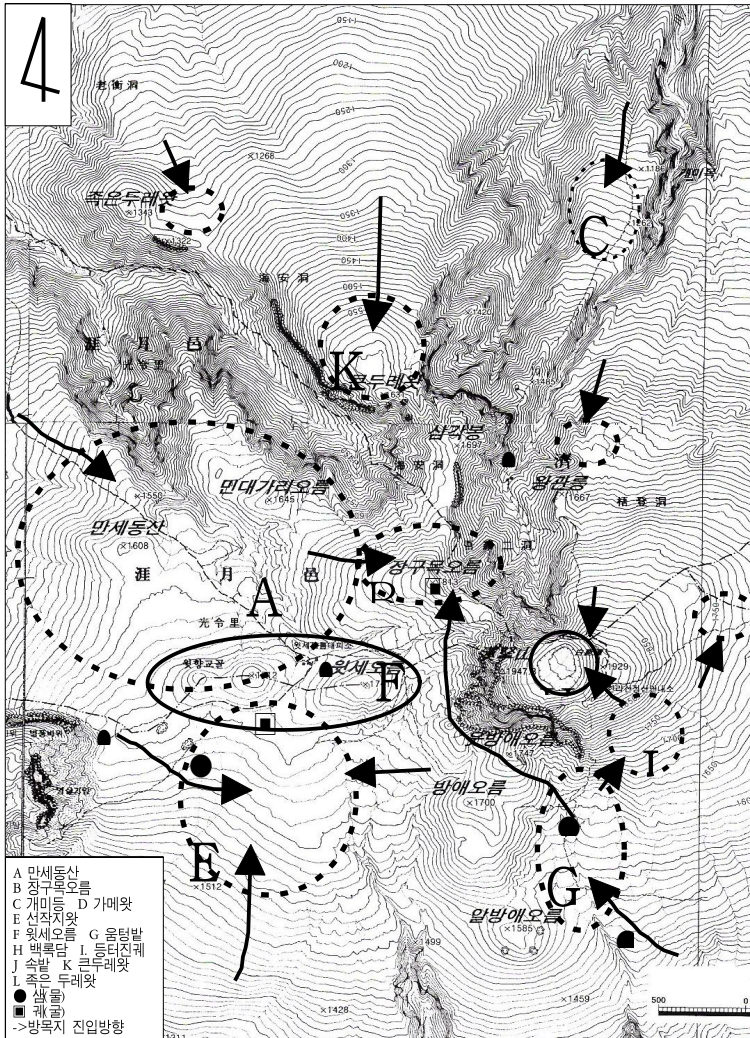
이러한 자연환경 하에서 방목이 행해진 상산방목지는 크게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산남지역과 산북지역으로 공간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5). 산남지역 상산방목지에는 움텅밭, 선작지왓, 등터진케 방목지가 대표적이다. 목축이 행해진 이들 장소들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움텅밭 방목지(G)는 서귀포시 동홍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한 윗방애 오름(1748m), 방애오름(1,699m), 알방애오름(1,585m)을 연결하는 목축지였다. 이 오름들은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어 하늬바람(서풍)과 북서풍을 막아주고 있다(그림 6). 이곳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sup>22)</sup> 서귀포시 하효동·상효동·토평동 목축민들이 공동으로 방목했음이 확인된다.

이곳은 해발고도(1500~1600m)가 높고 아침 기온이 낮아 안개가 수시로 발생하나, 여름철 기온이 낮아 호흡성 진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천(효돈천)과 방애오름샘 그리고 ‘움텅밭 내 창케’가 위치하고 있다. 움텅밭은 생김새가 마치 분지(盆地)처럼 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1930년대 한라산을 다녀간 이은상의 『耽羅紀行 漢拏山』(1937)에도 이 지명은 등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곳

21) 『景宗實錄』 권13, 1723년 7월 4일(신사), 「제주에 竹實 이 나다」: 제주에 죽실이 났다. 한라산에는 전부터 분죽(紛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잎은 크고 줄기는 뽕죽하여 노죽(蘆竹)이라 이름하였다. 옛부터 씨를 맺지 않았었는데, 4월 이후로 온산의 대나무가 갑자기 다 열매를 맺어 모양이 구맥(瞿麥)과 같았다. 이때 제주도의 세 고을이 몹시 가물어 보리농사가 흉작이었으므로 백성들이 바야흐로 뽕죽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것을 따서 전죽(籩粥)을 만들어 먹고 살아난 자가 많았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자료).

22) 남원읍 하례리 마을회(1999), 『下禮마을』, 서울문화사, 80쪽.



<그림 5> 1970년대 한라산 상산방목지 위치도

(한라산 도엽, S=1:25,000, 샘과 궤는 대략적 위치임)

A : 만세동산 방목지 B : 장구목 방목지 C : 개미목 방목지 D : 가메왓 방목지  
 E : 선작지왓 방목지 F : 윗세오름 방목지 G : 울당밭 방목지 H : 백록담 방목지  
 I : 등터진계 방목지 J : 속밭 방목지 K : 큰두레왓 방목지 L : 작은 두레왓 방목지에 해당.  
 (지도 중 F와 H 방목지는 제주 전지역 공용방목지임)





<그림 6> 움텅밭 방목지(2012. 11. 18)

<그림 7> 선작지왓 방목지(2012. 10. 13)

에 방목하던 우마들은 풀과 물이 부족해지면 북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장구목 오름 사면으로 가기도 했다.

‘선작지왓’(E)은 제주어로 ‘돌(작지)이 서있는 밭’을 의미하며, 위치적으로 보면 영실기암 상부구상나무 숲에서 시작하여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에 이르는 한라산 고원 초원지대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털진달래·산철쭉·눈향나무 등의 군락이 발달해 있어 등산객들 사이에 ‘산상정원(山上庭園)’으로 불리고 있다.<sup>23)</sup> 이곳은 해발 1600~1700m 일대에 해당하며, 넓은 초지와 노루샘과 ‘탐궐’이 위치하고 있어 목축지로 활용되었다. 특히 노루샘은 ‘보섭코지’ 물에서 흘러나온 샘으로, 이 물은 오랜 가뭄으로 백록담 물이 말라도 꾸준히 흐르는 물로,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 우마들과 테우리들이 공용했다(그림 7). 현재도 이곳은 영실 등반로 이용객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등터진궐 방목지(I)는 백록담 동릉에 위치하며 서귀포시 하원동·상효동 목축민들이 이용했다. 이곳에 방목되던 소들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거나 바람이 불고 물이 필요할 때 가까이에 위치한 백록담 내부로 들어갔다.

산북지역 상산방목지로는 개미등, 만세동산~사제비오름, 큰두레왓,<sup>24)</sup>

23) 오희삼(2009), 『한라산 편지』, 터치아트, 64쪽. 문화재청은 2012년 12월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1호로 지정했다. 이곳은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일원으로, 문화재구역은 2필지(632,485㎡)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한다.

24) 큰두레왓(해발 1630m)은 오름(측화산)으로 오라동 산 107번지 내에 위치하며 정상부를 중심으로 초지가 형성되어 방목지로 이용되었다. 이곳의 방목장면은 『안승일 사진집 한라산』(안승일, 1993, 도서출판 호영, 27쪽)에 실려 있다.

장구목, 가메왓 목축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개미등 방목지(C)는 개미목(蟻項)에서 삼각봉 대피소 구간에 해당하는 해발 1,200~1,500m 일대에 해당한다.<sup>25)</sup> 이곳은 제주시 오라동과 정실마을 주민들의 공동목축지로 알려졌다. ‘개미목도’를 오르면 1km 정도 긴 능선으로 이어진 곳이 개미등이며, 현재



<그림 8> 가메왓 방목지(사진 : 홍정표)

는 방목이 금지되면서 초지대가 수목지대로 변했다.<sup>26)</sup>

사제비오름(광령리, 1,425.8m)과 만세동산,<sup>27)</sup> 민대가리오름, 장구목을 연결하는 목축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주된 방목지였다(A). 사제비 오름에서 만세동산을 가는 도중에 사제비 샘이 있으며, 만세동산 서쪽 약 300m 지점에 ‘상괘’[황괘]라는 5~6명이 살 수 있는 바위굴이 남아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애월읍 광령리 목축민들은 이 궤에 있으면서 우마들을 관리했다. 만세동산은 초지, 시로미, 조릿대, 구상나무 숲, 물, 그늘을 제공했던 오름 정상에 바위가 있어 우마와 테우리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sup>28)</sup> 가메왓 방목지는 오동동 산 182번지 왕관릉 동북쪽 초원지대를 말한다(D).<sup>29)</sup>

<그림 8>은 만농 홍정표(洪貞杓) 선생의 사진집에 등장하는 가메왓 방목장면이다.<sup>30)</sup> 사진에서 원내에 방목 중인 가축은 소이며, 주변에는

25) 석주명(石宙明)은 개미목이 제주어로 ‘계엄지목’(蟻項)에 해당되며, 당시 이곳을 제주조릿대가 무성한 세죽원(細竹原)으로 표현했다. 수목(樹木)이 없는 곳이며, 여름에는 초원(草原), 겨울에는 설원(雪原)을 이룬다고 했다(石宙明, 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192-198쪽).

26) 양송남(2010), 『양송남의 40년지기, 漢拏山 이야기』, 태명인쇄사, 106-107쪽.

27) 만세동산(광령리, 1,606.2m)은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지도』(1899) 등에 만수동산(晩水同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28) 오희삼(2009), 앞의 책, 183-186쪽.

29) 양송남(2010), 앞의 책, 21쪽.

30) 제주대학교 박물관(2012), 『기록, 만농이 바라본 섬 제주』, 『한라산 왕관릉과 가

초지대, 구상나무 숲과 왕관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장구목도 방목지였다. 장구목에는 현재 돌담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이 돌담이 있는 지점을 일명 ‘신카름밭’이라고 하며, 이곳에 우마를 방목할 당시에 경계용으로 쌓은 돌담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곳에 돌담을 쌓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일설에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제주시 노형동(또는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 축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sup>31)</sup>

백록담 방목지(H)와 윗세오름 방목지(F)는 여러 마을 행정경계선이 만나고 있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군(南北郡) 우마들이 공동으로 방목되던 목축지였다. 백록담 방목지는 한라산을 등반했던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인들의 기록에도 등장했다. 백록담의 2/3는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토평동 산1번지에 해당되나, 물과 풀을 찾는 우마들에게 행정경계는 더 이상 구속이 아니었으며, 이곳은 감시와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해방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윗세오름 일대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공동방목지였다. 현재 이곳은 한라산 영실 등반로와 어리목 등반로가 교차하는 장소이다. 윗세오름 남쪽은 서귀포시 하원동 그리고 북동쪽은 애월읍 광령리에 해당되지만, 이곳이 제주시 해안동,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영남동, 서홍동 등 여러 마을의 고산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산방목에 참여했던 남북군 지역 우마들의 집합장소이자 테우리들의 만남 장소였다. 이곳에 가면 여러 마을의 다양한 낙인들을 한 우마들이 서로 섞여 방목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매왓방목」.

- 31) 양송남(2003), 『한라산의 지명연구』, 『山書』 제14호, 한국산악회, 53쪽.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74년 제주도가 펴낸 『한라산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에도 장구목 오름 정상부 돌담 내용이 실려 있다.



### Ⅲ. 문헌자료에 나타난 상산방목

#### 1. 상산방목의 의미와 특성

근현대 시기에 제주도 산남·산북지역 주민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00m 이상의 초지대를 마을 위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상산(上山)’이라 불렀다.<sup>32)</sup> 앞서 지적했듯이 이곳의 정점에는 백록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백록담 아래 남·서사면의 완경사지에는 바람이 많고 토양 층이 적기 때문에 목본류 대신에 초지가 우점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상산방목은 근현대 시기 해발 1400m 이상의 아고산지대를 지칭하는 제주어인 ‘상산’에서 이루어지던 목축방식을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여름철 농사에 지친 농우(農牛)들이 일정기간 방목되었다.

이러한 상산방목은 비록 국유지에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인근 촌락공동체가 행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관습적 권리였다. 마을공동으로 방목이 가능했던 목축지가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뿐만 아니라 상산지대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내륙지방(‘육지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을공동목장이 목장조합비를 낸 조합원들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 목축지였으며 관리책임자가 있었던 반면에 상산방목지는 무료로 이용되었으며, 특별히 마을에서 또는 방목자들이 지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상산방목은 마을간 그리고 방목자들간 일정한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질키며 행해진 목축민속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방목이 행해진 상산방목지는 중간산 지대 마을공동목장과는 달리 특정마을의 배타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마을공동체 공동재산[공유자원]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다시 말하면, 제주지역 한라산 아고산지대의 상산방목지는 그야말

32) 제주지역 목축민들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을 의미하는 고산(高山)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마을 위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상산(上山)이라고 했다. 제주지역에서 ‘상산’은 ‘고산’에 비해 역사문화적 성격이 강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산에 간다’는 말은 했으나 ‘고산에 간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로 누구나 자유롭게 목축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상산방목은 하계방목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계절적 방목인 동시에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동하며 목축을 했다는 의미에서 남부유럽에서 행해졌던 이목(移牧)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부유럽의 대표적인 목축형태인 이목(transhumance)은 여름철 방목지인 고지대와 겨울철 방목지인 저지대 계곡 사이를 왕복하며 이루어지는 가축과 사람들의 계절적 이동을 말한다.<sup>34)</sup> 대부분의 경우, 남부유럽에서도 방목용 토지가 무료로 이용되었으며 목초지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았다는<sup>35)</sup> 점은 제주지역의 상산방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산방목을 위해서는 임시 거처가 필요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소규모 자연동굴인 ‘케’로, 이곳은 목축민들이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였다. 이들은 상산방목지에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 만든 고정식 또는 이동식 건축물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케를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케’는 비바람이 불어도 붕괴 위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식처로 기능했다.

제주지역 목축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백록담을 표지물(landmark)로 삼아 상산으로 우마를 올렸다. 따라서 백록담 주변은 늘 여러 마을에서 올라온 우마들의 집합장소인 동시에 태우리[牧子]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 왔다. 상산에는 방목지 점유를 둘러싼 마을간 또는 방목자간 갈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초지방목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공동목장의 비극<sup>36)</sup>도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다만 낙인이 모두 지워져 버린 어

33)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은 정치생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폴 로빈스 지음, 권상철 옮김(2008), 『정치생태학』, 한울, 95-96쪽). 제주지역의 상산방목지 역시 여러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34) Lambert M. Surhone, Mariam T. Tennoe, Susan F. Henssonnow(2010), *Transhumance*, Betascript publishing, p.1.

35) Daniel A. Gomez-Ibanez(1977), 「Energy, Economics, and the Decline of Transhumance」, *Geographical Review*(Vol.67),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p.287.

36) Garrett Hardin(1968)이 주장한 공동목장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에서 목축민들이 자기 우마들을 함부로 방목해 버린 결과 목초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방목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목축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유지에 있는 자원을 함부로 남용

미 소가 출산한 송아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다.

중산간 마을공동목장에서는 엄격한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감시자를 고용해 초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했다. 반면에 한라산 아고산 지대의 상산방목지는 마을간 뚜렷한 경계설정은 무의미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초지에 대한 집합적 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넓은 초지면적에 비해 방목우마 수가 과도한 것도 아니어서 방목에 의한 초지 황폐화라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의한 초지 황폐화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도 했을 뿐이다.

이곳에 방목하는 목축민들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상산방목기간에 1가구당 소 1두 또는 2두(어미소와 송아지의 경우)씩 방목하는 ‘오래된 관습’을 불문율로 지킴에 따라 과방목을 서로 예방하여 소위 공동목장의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상산방목지는 특정개인의 소유하는 사유지적 목축지가 아니라 목축민들이 공동방목하던 공유지적 목축지였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단지 낙인을 가지고 방목주체를 구분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제주지역 상산방목민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관습적으로 이어 온 마을간 방목지 경계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일정 장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방목했다. 이것은 방목지를 둘러싸고 마을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지혜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당시 산남지역(남제주군) 목축민들은 자신들의 소들이 산북지역(북제주군) 경계 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했으며, 뒷세오름 남쪽인 산남지역 영역 내에서 가급적 방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뭄과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풀이 부족할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경계선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상산방목지는 경계선과 통제 및 갈등이 없었던 자유방목지대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직 안개와 비바람만이 우마이동을 방해할 뿐이었다.

이상과 같이 상산방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하계방목인 동시에 마을별로 소규모 방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방목형태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상산방목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마을의 『향토지』에도 등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실례로, 제주시 노형동 마을에서 ‘쇄’를 상산에 올려 방목했음이 확인된다. 이 마을주민들이 인식했던 상산이란 골머리(아흔아홉골)~백록담 밑을 의미했다. 노형동의 광평 마을에서는 한라산 동북쪽의 큰두레왓이나 장구목오름 너머에 있는 ‘왕석밭’ 아랫 쪽의 ‘도트멍밭’에 우마를 방목했다. 이곳에는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주민들도 함께 방목했다. 노형동 월산마을 주민들도 만세동산 주변을 이용해 방목했다.<sup>37)</sup> 애월읍 남읍리에서는 봄이 되면 윗세오름, 윗산술내, 노리오름밭, 안천이 등에서 목축을 했다.<sup>38)</sup>

서귀포시 월평동에서는 봄이 되어 한라산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소를 상산으로 올렸다. 그러면 소는 풀이 나는 장소를 따라 이동하면서 윗세오름이나 백록담에 까지 올라가 살면서 암소가 새끼를 낳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소들은 다시 해안에 위치한 월평마을로 내려왔다. 영리한 소들은 주인집까지 스스로 찾아오기도 했다. 풀이 마르는 가을이 시작되면 목축민들은 상산방목지로 소를 몰러 올라갔다.<sup>39)</sup>

## 2. 문헌자료에 나타난 상산방목

상산방목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상산방목의 시작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문헌자료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등장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면담조사에 응해 준 상산방목 경험자들이 일제시기 이전에도 상산방목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31년(영조 11) 9월 한라산을 오른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이 백록담 내에서 물

37) 노형동지발간위원회(2005), 『老衡洞誌』, 반석원색인쇄사, 181쪽.

38) 남읍향토지편찬위원회(2006), 『남읍향토지』, 세림원색인쇄사, 344-345쪽. 이 마을에서는 말들이 때를 지고 다니는 것을 ‘둔매’라 했다. 둔매에서는 ‘조매(암소) 우두머리’와 ‘웅매(수소) 우두머리’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조매 우두머리는 말 무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선봉에 섰고, 웅매 우두머리는 일정 지역에서 여름 내내 풀 뜯는 말들의 영역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산물내 먹는 둔’, ‘안천이 먹는 둔’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39) 김장민(1992), 『월평마을』, 나라출판, 122쪽.

을 먹고 있는 산마(山馬)를 목격했다는 기록에서도<sup>40)</sup>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도 제주지역 목축민들이 상산방목지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산방목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sup>41)</sup> 현재 남아있는 상산방목의 등장에 대한 기록들은 시기상으로 근현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상산방목의 모습은 제주도를 방문해 남긴 여행기와 문학작품에 다수 등장하고 있다. 특히 1901년(고종 5) 이재수의 난<sup>42)</sup> 직후, 제주목사 이재호(李在護, 1901~1902)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sup>43)</sup> 한라산 정상을 등정한 뒤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서양세계에 최초로 알린 독일의

40)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海山雜誌」: 白鹿潭在漢拏上峰之嶺...麋鹿山馬之屬每就潭飲之.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2008),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184쪽. 역자는 이 책에 실려 있는 한자 원문자료에 나타난 ‘麋’(큰 사슴 미)를 ‘고라니’로 번역하고 있다. 고라리를 의미하는 한자는 ‘麋’(암고라니 뿔)로 이것은 원문에 나와 있는 ‘麋’을 ‘麋’로 착각한 결과로 보인다. ‘麋’는 ‘고라니’가 아니라 큰 사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麋’와 ‘鹿’이 모두 사슴을 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만일 큰 사슴을 의미하는 ‘麋’이 노루를 의미하는 ‘麋’의 誤記이면 노루와 사슴 그리고 산마가 백목담에서 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되어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 『탐라문견록』의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 이에 대해서는 『세종실록』[권64, 세종16년(1434) 5월 1일]에 등장하는 “사복시 제 조가 아뢰기를, 제주에 목장을 축조하지 않았을 때, 한라산 허리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필을 놓아 마음대로 다니며 키우게 했다(司僕寺提調啓 前此濟州不築牧場 自漢拏山 上山腰以至平野 馬匹任意相通牧養)”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 허리에 방목했던 우마들이 현재의 상산방목지대로 올라가 풀을 먹었을 것으로 본다면, 상산방목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 이재수의 난은 1901년 이재수와 오대현이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제주지역 친주교도의 탈법적 행동에 대해 저항해 일으킨 민란이다.

43) 겐테가 제주도에 도착한 1901년은 이재수의 난이 일어난 지 수주 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로,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고 행정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시기여서 당시 제주목사는 한라산 등장을 극구 만류했다. 이재수의 민란이 프랑스 선교사와도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만약 산을 오르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했다(강문규, 2009, 「한라산을 서양에 알린 겐테」,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50쪽).

지리학자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1905)가 남긴 『겐테의 한국기행』, 이치카와 산키(市河三喜)(1905)의 『漢拏山行』, 이은상(1937)의 『耽羅紀行漢拏山』, H. 라우텐자흐(1945)의 『코레아 I』, 정지용(1941)의 『백록담(白鹿潭)』, 신석정(1968)의 『白鹿潭에서』, 이병태(2003)의 『60년대 한라산 등반기』, 김광협(1994)의 『상산에 올린 쉼』 등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이 기록들에 등장하는 상산방목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백록담 물 언저리에는 육지에서 제주섬을 '말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왜소한 체구의 작지만 강인한 야생마들이 풀이 뜯고 있다. 텃수룩한 방한모피 때문에 그 말들은 좋지 않은 산악기후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말들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에도 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목장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분화구 가장자리 지점에서 나는 두툼하게 쌓인 말똥을 발견했다. 이는 단련된 그 짐승들이 밤에도 바람 많은 이 정상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sup>44)</sup>

(가)는 겐테(1870~1904)의 제주여행기 대목이다. 여기에 등장한 백록담 분화구 내에서 물을 먹으며 바람을 피하는 키 작은 말들은 바로 조랑말을 가리킨다. 이 말들은 상산에 방목되던 중 백록담 분화구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장면은 해발 800~900m에 위치했던 능화동(菱花洞)에서 개미등을 지나 한라산 정상으로 산행했던 이치카와 산키(1905)가 남긴 『漢拏山行』에 백록담 화구벽에 여러 우마들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다는 기록이나<sup>45)</sup> 1930년대 한라산을 답사한 독일의 지리학자 H.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1945)의 『코레아 I』에서도 재차 확인된다.<sup>46)</sup> 일본인 학자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과 마수다 이치지도 1930년대 한라산 백록담에서 우마군(牛馬群)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sup>47)</sup>

44) 지그프리트 겐테 지음, 최석희 옮김(1999), 『겐테의 한국기행』,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212쪽.

45) 이치카와 산키(1905), 『漢拏山行』, 『漢拏山』 통권 제10호, 제주산악회(1984), 119~120쪽.

46) H. 라우텐자흐(1945),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역(1998), 『코레아 I』, 655쪽.

(나) 우리는 남쪽 언덕을 넘어 上峰의 外壁을 끼고 내려간다. 이 외벽은 속칭 ‘막울’이라 하니 이것은 ‘막아둘린 올타리’라는 뜻이요, 그 아래 널려있는 亂石地帶는 ‘움텅밭’이라 부른다. ‘막울’ 밑 ‘움텅밭’을 겨우 지나 앞으로 바라보는 곳에 다시 올라가는 언덕이 있으니 이것은 ‘방아오름’이라 부른다. 방아오름의 樹林을 지나면서 山間小川을 만나는데 이 냇물을 건너서면 ‘모새밭’이라 부르는 곳이 나선다. 모새밭이라 함은 사막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一分 沙地, 二分 草原, 七分岩屑의 광막한 지대다.<sup>48)</sup> 문득 보매, 바위 사이 굴형 속에 언제 죽은 무엇인지 白骨의 도막이 쓸어져 있다. 우리는 깜짝 놀라 指路者에게 이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放牧하는 말이 죽은 것인데 군데군데 이런 백골이 더러 보인다고 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바위를 잘못 밟아 굴형에 빠진 채로 다시 나오지 못하여 비참히 죽은 것이다.<sup>49)</sup>

(나)는 이은상(1937)의 『탐라기행 한라산』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첫째, 한라산 남벽 아래에 해당하는 ‘막울’, ‘움텅밭’, ‘방아오름’, ‘모새밭’이라는 방목지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중 움텅밭은 돌이 많은 난석지대(亂石地帶), 모새밭은 산간소천(山間小川)에 의해 형성된 모래(沙地) 그리고 초원과 대부분 작은 자갈에 해당하는 암설(岩屑)로 구성된 곳이었다. 둘째, 바위 사이 굴형(틈) 속에 빠져 죽은 백골은 이곳에서 ‘방목하던 말의 것이다’라는 길 안내자의 설명을 통해 말들이 움텅밭 일대에서도 방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바야흐로 海拔六千口尺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너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여진다.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百里를 돌아 西歸浦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움매-움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登山客을 보고도 마고 매여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 것을 나는 울었다. 가재도 그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

47) 泉靖一(1971), 『濟州島』, 洪性穆 譯(1999), 제주시 우당도서관, 167쪽; 櫟田一二(1976), 『濟州島の地理的研究』, 제주시 우당도서관 편역(1995), 52쪽. 마수다 이치지는 백록담에 대한 답사에서 소 31두, 말 9두가 분화구에서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48) ‘모새밭’은 ‘선작지왓’에 해당된다(고정균, 2006,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한라산의 등반·개발사』(한라산총서 VI),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46쪽).

49) 이은상(1937), 『耽羅紀行 漢拏山』, 조선일보출판부, 203-207쪽.

에 하늘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를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진 白鹿潭은 쓸쓸하다.<sup>50)</sup>

(다)는 정지용(1941)의 『백록담』에 등장하는 시구(詩句)이다. 여기서 해발 6,009척은 대략 1,800m로 이곳은 선작지왓과 방애오름 부근에 해당된다. 당시 정지용이 본 우마들은 백록담 부근에서 상산방목 중이던 것이었다. 소의 출산장면이 나타나 있어 주목되며, 암소가 산길을 이용해 서귀포로 달아났다는 것은 산남지역에서 상산으로 올린 소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소들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먹었음도 보여주고 있다.

(라) 백록담으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폐소를 만났다. 송아지도 일췌 어미소 옆에서 산비 속에 풀을 뜯고 있었다. 여기서도 소들도 백록담 물을 마시고 고산식물을 먹고 산다. (...) 나도 이대로 한라산 백록담 구름에 묻혀 마소랑 꽃이랑 오래도록 살고파 까마득 하산을 잊어버리라.<sup>51)</sup>

(라)는 신석정이 1968년 『月刊文學』에서 발표한 「白鹿潭에서」의 일부이다. 이 시는 1960년대 직접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간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백록담으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만난 소의 무리는 바로 상산방목시킨 소들을 가리킨다. 일제시기에 한라산 정상을 등반했던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신석정 역시 백록담에서 상산방목 중인 소들을 본 것이었다.

(마) 산행에 뜻밖의 파노라마 초원이 전개되었다. 해발 1400m인 개미등이다. 여기는 한라산 특색 중 하나인 개미등이다. 이 개미등의 길이는 3km라고 한다. 바닥이 폭신평신하다. 山上草原과 산등성은 그 주위가 장엄한 파노라마가 아닐 수 없다. (...) 마침 아이와 지팡이를 든 어른이 나타났다. 백록담으로 소가 잘 있나 알아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암놈 8마리, 수놈 5마리 모두 1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 혹시 누가 잡아먹거나 끌고 가면 어떻게 하죠? 이 산에서 소를 잡다가 잡히면 목동들에게 얻어맞고 10년 징역이다. (...) 축우들이

50) 정지용(1941), 『백록담(白鹿潭)』, 문장사, 134쪽.

51) 신석정(1968), 「白鹿潭에서」, 『月刊文學』, 월간문학사, 179쪽.



풀을 뜯고 혹은 맑은 물에 허를 빨고서는 ‘음메’ 울기도 한다. 숨찬 줄 모르고 따라갔다. 잠시 발길을 멎어 앞을 내려다보니 그 아저씨가 굴속으로 들어갔다.<sup>52)</sup>

(마)는 이병태의 『60년대 한라산 등반기』의 일부로, 해발 1400m 일대 총 길이 3km 정도로 펼쳐진 개미등은 바닥이 푹신푹신한 산상초원(山上草原)이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가 백록담에서 만난 지팡이를 든 어른은 상산에서 암수 모두 13마리를 키우는 목축민으로, 백록담에 소들이 잘 있나 알아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특히 “상산에서 남의 소를 몰래 잡다가 잡히면 목동들에게 얻어맞고 10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어른의 이야기는 상산에 올린 소들을 서로 보호하려는 사회적 규제들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장치들이 실현가능성은 낮았으나 이러한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상산방목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미등 초원에서 축우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 목축민들이 현재 한라산 관음사 등반로를 이용해 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바) 한라산도 불구릉 향여 가곡/ 조팔되 조 코구리도 노리릉 향여 감쥬/ 상산에 올린 쇠도/느려울 때가 되엿구나/저놈의 쇠 느려오명/ 송애기랑 호나 낭오지 못홀전정/놈의 집 조팃이나 판내우지 말아시민/여름 호철/ 진독광 부구린<sup>53)</sup> 무사사 경 한디/ 진독도 털어지곡 부구리도 털어지곡/문짜 술쳐아정 오커던 오라/ 놈의 집 조팃이나 콩발디랑 얼러 탕기질 말라/호다 호다 얼러탕기질 말아 도라<sup>54)</sup>

52) 이병태(2003), 『60년대 한라산 등반기』, 『山書』 제14호, 한국산악회, 156-160쪽.

53) 소에 달라붙어 흡혈하며 일생을 보내는 진드기와 부구리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진드기는 알→새끼→진드기→부구리 4단계로 성장한다. 알이 3개이면 새끼리, 4개이면 진드기(진독), 부구리는 알을 배어 배가 볼록한 상태의 진드기를 말한다. 부구리는 산란할 때 소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지상에 있는 쉼뚱, 말뚱, 돌맹이, 참억새 등에 산란하고 생을 마감한다(『제주도민일보』 2010년 11월 2일자, 「진드기가 겨울 잠든 음력 2월, 방목지대에 불 놓았다」 <21> 방화의 배경).

54) 제주도(1994), 『韓國의 靈山 漢拏山』,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180쪽. 이 시를 표준어로 바꾸면, 한라산도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조팔에 조 이삭도 노랗게 변해가고/ 상산에 올린 소도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저 놈의 소 내

(바)는 김광협의 『상산에 올린 쇠』라는 시이다. 이를 통해 첫째, 상산에 올린 쇠는 한라산에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조 이삭이 익어갈 때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0월에 단풍이 들 때는 방목지의 기온이 점차 내려가 풀들이 마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마들의 먹이가 부족해지므로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산에서 마을로 내려갈 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타인 소유의 조밭이나 콩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여치우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상산방목 장면은 제주지역 속담에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상산에 물이 가물면 쇠가 살찐다’는 말은 가물이 들어 물이 모자라면 오히려 소들이 풀을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잘 찐다는 의미이다. ‘뭇쉬랑 나건 상산에 보내곡, 사름은 나건 서월(울)에 보내라’<sup>55)</sup>는 말에서 제주지역에서 우마를 키우는 최적지가 중산간지대 마을 공동목장보다는 상산방목지대였음을 보여준다.<sup>56)</sup> ‘상산에 올르민 꼭있도 맛있나’<sup>57)</sup>에서 ‘꼭있’은 씹임을 말하며, 상산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씹임조차도 맛이 있을 정도로 우마들에게 영양가 있는 먹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산방목지는 여름철 기온이 낮아 진드기가 거의 없고 물과 먹이가 풍부해 그야말로 방목 우마들에게는 이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상산방목 마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상산방목에 참여했던 제주지역 마을들은 어디일까? 근현대 시기 제주도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제약없이 상산방목지에

---

려오면서/ 송아지를 하나 낳아 오지 못할 거면/ 남의 집 조밭을 망치지 말았으면/ 여름 한철/ 진드기와 부구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진드기도 떨어지고 부구리도 떨어지고/ 많이 살찌서 올려면 오라/ 남의 집 조밭이나 콩밭을 다니지 말라/ 하다 하다 같이 어울려 다니질 마라 달라.

55) 고재환(2011),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188쪽.

56) 중산간 지대의 마을공동목장은 상산방목지에 비해 고도가 낮아 진드기 피해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조합비를 납부해야만 방목이 허용된 것이었다. 반면에 상산방목지는 고도가 높아 기온이 서늘해 진드기가 거의 없었으며, 무료로 초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57) 오성찬(2002), 『고근산 기슭마을 호근·서호리』, 도서출판 반석, 122쪽.

서 우마를 자유롭게 방목할 수 있었다. 상산방목을 행했던 마을들의 구체적인 분포는 최근 각 마을에서 발간되고 있는 『향토지』와 중산간 지역 마을 목축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 상산방목에 참여했던 마을로는 애월읍 광령리, 유수암리, 남읍리, 상가리, 장전리 그리고 제주시 노형동<sup>58)</sup>, 해안동, 연동, 오동동, 한림읍 금악리 등이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안덕면 덕수리와 상창리,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동, 도순동, 영남동, 호근동, 토평동, 하효동, 하효동 신희동 그리고 남원읍 신례리, 하례리 등이 있다.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거주마을에서 백록담을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이 마을들에는 백록담 부근 상산방목지가 가시권에 있어 목축민들은 여름농사에 투입되었던 우마들을 시원하고 목초가 풍부한 상산에 올려 방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제시한 상산방목 마을들은 대체로 제주도 동서부 지역을 제외한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부 중산간 지대에는 넓은 목축지가 발달하고 있어 굳이 백록담 부근으로 우마를 올려 방목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산동지역(성산·표선)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영목마장이었던 1소장과 10소장 그리고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이 위치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자연초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볼 때 백록담과의 공간거리가 길어 백록담 부근 상산방목지는 가시권에 들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산동지역에서 상산방목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산남북 지역은 동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지가 발달한 지형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목축지가 적어 자연스럽게 해발 1,400m이상의 초지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산방목이라는 목축형태는 목축지가 부족하고 백록담 일대가 가시범위에 들어오는 마을에 거주하는 목축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58) 노형동 마을에서는 아흔아홉골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상산’에 ‘오림쇄’(野牛)를 방목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형동에 속했던 정존마을은 아흔아홉골 부근, 광평마을은 큰두레왓이나 장구목 너머에 있는 ‘도트명밭’, 만세동산, 백록담에 쉼을 올려 방목했음이 확인된다(고정균, 2006, 앞의 글, 48쪽).

## IV.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 1. 목축민속의 개요

상산방목은 제주지역에 시대를 달리해 존재하는 다양한 목축민속 중 하나였다. 이 절에서는 상산방목 목축민속을 검토하기에 앞서 제주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목축민속의 개요를 시대별, 지대별로 제시하여 상산방목 목축민속을 부각시키려 한다.

시대별로 보면, 제주지역에는 1273년(고려 원종 14) 여몽연합군이 제주지역에서 삼별초 세력을 축출한 후, 1276년(충렬왕 2)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몽골식 탐라목장(耽羅牧場)이 100년 가까이 운영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목마장인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 등이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에는 원나라의 탐라목장 운영기간부터 존재했다고 판단되는 거세(去勢), 낙인(烙印), 방목(放牧) 민속 외에도 점마(點馬), 공마(貢馬), 감목관(監牧官), 목자(牧子), 분전(糞田), 잣성(牆垣), 방앗불 놓기(放火) 등 목축민속들이 다수 등장했다. 여기에다 일제시기에는 일본식 공동목장제도가 제주도에 이식되면서 화입(火入), 이표(耳標), 목감(牧監), 마을공동목장조합, 마적증(馬籍證) 등의 목축민속 요소들이 더해져 그야말로 제주지역 목축민속에는 원(몽골), 조선(제주), 일본 등 삼국의 목축문화들이 제주도라는 큰 저수지에서 화학적 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표 4>는 제주지역 목축민속 구성요소를 지대별·절기별로 요약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중심부에 남한 최고의 한라산이 위치한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대별로 수직적 토지이용과 식생분포 그리고 목축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해안지대(해발 200~600m)는 최한월 평균기온이라도 4℃ 이상을 보일 정도로 온화하여 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연중 우마방목이 행해졌다. 가을철 상강(霜降)을 전후하여 기온이 내려가면 중산간 지대 마을공

59) 강만익(2013), 앞의 책, 277쪽. 이 책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목축문화에 대해 역사민속학적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다.

<표 4> 제주도의 지대별(地帶別)·절기별 목축민속

지대별	해안지대 (0~200m)	중산간지대 (200~600m)	삼림지대 (600~1400m)	아고산지대 (1400~1950m)	
목축 민속	해안방목 번쉐 낙인 축사사육 우마이용 발발기	조시대 십소장 마을공동목장 방목 방앗불 놓기(火入) 공동목장 출역(出役) 바령쉐, 샛쉐 번쉐, 뎡쉐 낙인, 병작쉐 목장경계용 돌담보수 테우리 제사(백중제) 마을공동목장조합 운영 ‘출(꼴)’ 베기 ‘계’방목	꽃쉐 연중 방목	상산방목 우마찾기를 위한 고사	
절기별	입춘전후 (2/4)	청명전후 (4/5)	망종전후 (6/6)	상강전후 (10/23)	대설전후 (12/7)
목축 민속	낙인				축사사육
	축사사육	마을공동목장 방목			
	방앗불놓기		상산방목		
	목장돌담 보수		바령쉐, 샛쉐, 번쉐 방목 테우리 제사(백중제)		
	꽃쉐[野牛] 연중방목				

동목장과 상산방목지(1400~1950m)의 목초들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마을로 내려온 소들이 해안초지에서 방목되기도 했다. 소들은 추위에 약해 방목지에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 축사에서 길러졌다. 이에 대비해 목축민들은 해마다 가을철 마을공동목장 내 또는 인근에서 자라는 ‘출’(꼴)을 베어 말린 건초를 준비했다.

봄철이 되면, 우마들은 밭 갈기와 밭 밟기에 투입되었으며, 목축민들은 청명(淸明)을 전후해 이루어질 공동목장 또는 상산방목에 대비해 목축지로 올릴 어린 우마들을 대상으로 소유주를 구별하기 위해 낙인(烙印)을 했다.

여름철 공동목장과 상산에 올라가지 못한 소들은 축주들이 조직한 ‘췌접’(계의 일종)에 근거해 특정 계원이 방목책임을 번갈아 가며 맡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길러진 소들을 ‘번췌’(番牛)라고 했으며, 제주시 도두동, 화북동, 한경면 청수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sup>60)</sup>

2차 초지대가 발달한 중산간 지대 목축민들은 이른 봄철에(음력 2월 중순~3월 초순) 진드기 유충 구제와 지난해의 잔초를 제거하기 위해 방목지에 방화선을 구축한 다음, ‘방앳불’ 놓기(放火)를 진행했다.<sup>61)</sup> 이것은 마을에서 바람이 없는 일정한 날을 선택해 이루어진 마을공동체 행사였으며, 이것이 현대적 축제로 승화된 것이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열리는 제주시 들불축제이다.

여름 농작물 파종이 마무리된 후 해안마을 목축민들은 목초지가 있는 이웃한 마을공동목장이나 중산간 목축민들에게 소를 위탁했다. 이런 소를 ‘삿쉐’라 했으며 그 대가로 위탁한 1두당 보리 3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sup>62)</sup> ‘삿쉐’라는 위탁사육법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솔도마을<sup>63)</sup>과 제주시 해안동에서 확인되나 현재는 모두 사라진 목축문화였다. 특히 구좌읍 송당마을 목축민들은 인근의 해안마을로 내려가 일정한 구두계약을 맺고 소들을 몰고 와 대신 길러준 다음 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위탁 소들을 ‘바령쉐’라고 했다. 이 소들은 낮에는 마을 경계 내에 위치한 오름 초지대에서 방목되었으나 밤에는 일정한 장소(밭)에 수용하여 이들의 배설물을 모았다가 농경용 거름으로 이용했다.<sup>64)</sup>

‘번쉐’와 ‘멤쉐’도 있었다. 번쉐는 농한기에 이웃끼리 당변을 정해 일정한 장소로 소를 몰아다 풀을 먹이는 소, 멤쉐는 남의 집 암소를 대신 길러 준 다음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서로 가르는 소였다. 이처럼 소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농경에 있어서 말보다 소의 의존비율이 높았음을 시사해 준다.

낙엽수림(온대림)이 주종을 이루는 삼림지대에서는 ‘곶쉐’ 방목이 이

60) 『제주도민일보』 2010년 10월 26일자, 「목초 산 사람은 목초 주민의 발 같이주는 것으로 값 지불 <20> 도두마을의 소사육과 도두봉」.

61) 『제주도민일보』 2010년 11월 09일자, 「전통적 방화, 일제 조림사업으로 전차 사멸 <22> 방목지대에서 조림지대로」.

62) 『제주도민일보』 2010년 6월 22일자, 「제주 생활사를 가르쳐 준 나의 스승 <2>」.

63) 『제주도민일보』 2011년 8월 30일자, 「7~20마리 부사리 9m ‘젓줄’ 묶어 관리 <62> 솔도마을 ‘젓줄쉐」.

64) 『제주도민일보』 2011년 8월 23일자, 「테우리들, 농작물 훼손 막으려 우장쓰고 불침번 <61> 송당리의 바령쉐」.

루어졌다. 꽃이란 나무 숲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이곳에 연중 방목되는 소를 꽃새[野牛]라고 했다. 꽃새 방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상산방목지대에 비해 해발고도는 낮은 곳이나 낙엽수림이 울창한 곳이었다.<sup>65)</sup> 이러한 꽃새의 방목은 제주시 노형동, 조천읍 고래리, 애월읍 유수암리,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확인된다.

## 2. 상산방목의 목축민속

### 1) 상산방목로 개척

이상과 같은 제주지역 목축민속들은 대부분 해안지역과 중산간 마을 공동목장 초지대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지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상산방목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목축민속에 대해 그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숲길, 올레길, 둘레길, 유배길 등 다양한 체험길들이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체험길들은 과거 제주도민들이 이용했던 옛길들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것으로, 제주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콘텐츠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sup>66)</sup> 이 절에서 다룰 상산방목로 역시 근현대 목축민들이 방목을 위해 이용했던 옛길로, 상산방목이라는 목축민속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상산으로 우마를 올릴 때 이용했던 방목로(放牧路)와 방목루트 만들기는 중요한 상산방목 목축민속의 구성요소였다. 백록담 부근으로 소를 올려 방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을과 방목지를 연결하는 루트를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상산방목로 개척은 상산방목에 참여했던 목축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선결과제였다. 다행히도 한라산 정상부와 마을 간에는 일찍부터 형성시기와 주체를 단언할 수 없는 다양한 길들이 마치 혈관처럼 존재하고 있었다.<sup>67)</sup> 상산방목을 희망하는 목축민들은

65) 『제주도민일보』 2010년 12월 14일자, 「눈에 간히고 먹거리 없고...꽃새의 처절한 겨울나기 <27> 낙엽수림지대 ‘꽃새’의 생태구조」.

66) 한정훈(2010),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1호, 9쪽.

마을과 한라산 방목지를 연결하는 최단루트를 선택해 날씨가 맑은 날 우마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돌들을 치우고, 울창한 나무 가지들을 쳐 내며 길을 만들고, 곳곳에 돌을 이용해 이정표를 만들어 배치해 방목로의 존재를 알렸다.

상산방목로는 대체로 ‘쉐 올리라’(소 올리기)–‘쉐 보래’(소 관찰하기)–‘쉐 내리라’(소 내려오기)라는 상산방목 3단계 과정이 이루어지던 길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방목로는 본래부터 존재하던 길을 목축민들이 힘을 모아 정비하여 탄생한 것으로, 마을에서 상산지대로 해마다 우마와 테우리(목자)들이 반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목루트는 한라산 등반로 설정에도 영향을 주어 오늘날 성판악, 영실, 어리목, 돈네코 한라산 등반로는 모두 과거 상산방목로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한편, 상산방목로를 확인하는 작업은 상산방목지 내에서의 이동로와 함께 마을과 상산방목지를 연결하는 루트 파악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산방목 목축민속에 대한 선적(線的)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산방목로는 방목지 내에서의 단거리 이동로와 마을과 방목지를 연결하는 장거리 이동로로 구분할 수 있다. 방목지내에서의 이동은 오름과 오름 사이 그리고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동로가 형성, 유지되었다.

상산방목지에 대한 현지답사결과, 오름(측화산)과 오름 사이 또는 오름과 초지대 사이, 초지대와 샘 사이에 남아있는 소로(小路)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 있었던 ‘쉐질’을 등반객들이 꾸준히 이용한 결과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목지내 이동루트들은 1980년대에 사실상 상산방목이 전면 종료됨에 따라 제주조릿대들에 의해 잠식되면서 소멸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절에서는 방목지내 이동루트보다는 현재 일부 남아있는 마을과 상산방목지를 연결하는 상산방목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방목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갔

67) 柳春燮(1934), 『濟州漢拏山の 萬里長風-上峰白鹿潭의 涼風을 생각하며』, 조선중앙일보사, 40쪽.



던 길인 동시에 목축민속을 상산방목지대로 옮기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길은 폭이 좁아 우마가 한 줄로 이동해야 하는 오솔길이었으며, 장구한 세월에 걸쳐 반복된 계절적 왕래의 결과 형성된 길이었다. 이처럼 상산방목로는 자연발생적인 부분이 많아 길의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당초에는 시설물도 없었다.

### ① 산남지역 방목로

상산방목로 확인을 위해 상산방목을 직접 경험했던 촌로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한 구술을 토대로 1:25,000 지형도에서 방목로를 복원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한계가 있어 이 절에서는 방목루트의 대체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용 빈도가 많았다고 하는 서귀포시 상호동·호근동·하원동 마을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유수암리 그리고 해안동 상산방목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먼저 산남지역의 상산방목로는 상호동(법호촌)·하효동 목축민들의 방목로인 마을~‘마지동산’~‘동광암케’~‘존내’~‘움텃밭’ 방목로 그리고 돈네코 등반로 및 하원동 목축민들의 방목로인 하원공동목장~법쟁이악~선작지왓~윗세오름~등터진케 방목로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산남지역 방목로인 움텃밭과 선작지왓 방목루트의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68)</sup>

먼저 움텃밭 방목로에 대해 현재의 서귀포시 상호동(법호촌 마을) 상산방목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호2동(법호촌)에서는 해가 뜨기 전에 1인당 1~2두의 소를 몰고 출발했다.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9소장목장의 상한선에 위치한 상жат<sup>69)</sup>을 지나 속칭 ‘아리랑 고개’를 지나면,

68) 이 방목로에 대한 답사는 2012년 11월 18일 오전 7시에 실제로 이 길을 이용해 40~50두 정도 산상방목을 했던 산남지역 상산방목 ‘마지막 테우리’인 오세창씨의 안내로 이루어졌다. 안내자가 거주하는 상호2동(법호촌)에서 한라산 남벽까지 오전 7시에 출발해 11시경에 남벽에 도착하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길이나 우마를 몰고 상산으로 갈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69) 상жат은 한라산 밀림지와 국마장이 위치했던 초지대를 구분하는 돌담에 해당된다.

현재의 돈네코 등반로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출발해 해발 650m 부근에 있는 밀림입구에 가면, 식생이 초지에서 활엽수림(온대림) 지대로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 조록나무 그리고 낙엽활엽수인 단풍나무와 서어나무들이 존재한다. 해발 850m에 도착하면 ‘썩은 물통’이 나온다. 용천수가 아니라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물통이어서 ‘썩은 물통’이라고 했다. 이 물은 서귀포시 신희·하효동·상효동 목축민들이 소를 몰고 올라갈 때 먹이던 물이었다. 해발 950m부터는 적송(赤松) 지대가 시작된다. 계속 올라가 만나는 하천을 건너 다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일명 ‘살체기도’이다. 여기서 ‘도’는 출입구를 의미하는 제주어로, 해발 1,200m에 위치하고 있다. 상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살체기도를 지나야 했다. 과거 이곳에서도 한라산 남벽이 보였으나 현재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높게 자란 결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발 1,300m 지점에 도착하면, 마치 두부처럼 생긴 사각형 형태의 ‘둔비’(두부를 의미하는 제주어임) 바위가 나온다(그림 9). 이 암석은 조면암으로 되어 있으며 ‘쇄’를 올리던 테우리들이 앉아 쉬는 곳이었다. 해발 1,400m에는 ‘평지케’<sup>70)</sup> 대피소를 만난다(그림 10).

현재 이 대피소는 ‘평지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상산방목이 이루어



<그림 9> 둔비바위(2012. 11. 18)



<그림 10> 평지케 대피소(2012. 11. 18)

70) 평지케는 평케, 평지암으로 불렸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평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평케’가 아니라 ‘평지케’가 맞다는 오세창 씨의 의견을 수용해 ‘평지케’라고 했음을 밝힌다.

졌던 시기에 테우리들이 즐겨 찾던 임시 숙식공간이었다.<sup>71)</sup> ‘평지케’에서는 한라산 남벽과 그 아래의 상산방목지가 훤히 보인다. 그러므로 산 남지역에서 상산의 실질적인 시작점은 바로 ‘평지케’부터이다. 이곳은 상산에 ‘쇄’(소)를 올린 테우리들의 집합 장소이자 정보교환 지점이기도 했다. 그런데 ‘케’가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평지케’ 근처에는 하천이 있어 물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곳의 물을 ‘평지케물’, ‘존내골물’이라 했다.

‘평지케’ 바로 서쪽에 있는 규모가 작은 하천을 ‘존내’(작은 내)라 했다. 목축민들은 ‘평지케’까지 올라온 소들을 이곳부터 풀어놓았다. 그러면 우마들은 ‘존내’(작은 하천)를 거쳐 알방애오름, 방애오름 일대로 올라가면서 스스로 풀을 먹으며 살았다.

우마들은 물과 풀을 찾아 점차 이동한다. 해발 1500m에 위치한 ‘넓은드르’ 전망대를 지나면, 알방애오름(‘거문서덕’)~방애오름~웃방애오름(‘가마웃산’) 동사면 기저부를 연결하는 ‘움텅밭’ 방목지가 넓게 전개된다. 해발 1500~1800m 일대에 위치한 움텅밭 일대는 서귀포시 토평동, 상호동, 하효동 우마들의 방목지였으며, 상산방목지의 사실상 최종 종점이었다. 움텅밭의 우마들은 윗방애오름을 지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경인 장구목오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귀포시 하원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선작지왓 방목루트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해당 마을에서 출발해 하원공동목장~법쟁이악 동쪽~영실기암 동쪽~선작지왓~윗세오름~방애오름~등터진케를 연결한다. 선작지왓 일대는 하원동, 도순동, 호근동 목축민들도 방목지로 활용했다. 산작지왓 초입에는 ‘탐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장구목, 백록담, 윗세오름, 방애오름이 가시권 내에 있다.

이밖에 서귀포시 호근동 주민들은 움텅밭을 지나 윗세오름 부근에 있는 왕석밭 지경에서 우마를 방목했다. 이 마을의 방목로는 호근 마을~중어니캐~죽제비케~선작지왓~윗세오름~왕석밭이었다.<sup>72)</sup>

71) 『제민일보』 2009년 12월 18일자, 「한라산의 숨은 절경 15년만에 세상 밖으로」 (돈네코 등반로)

72) 호근동의 방목로는 2013년 1월 18일 서귀포시 호근동 1753번지에 거주하는 현 성화(73세) 씨와의 전화인터뷰 자료이다.

## ② 산북지역 방목로

산북지역의 방목로는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천아오름~해안 공동목장~사제비 오름~만세동산~민대加里 오름 방목로 그리고 제주시 해안동·노형동 주민들의 큰두레왓~장구목 방목로, 제주시 오등동·오라동(정실마을) 주민들의 개미등 및 가메왓 방목로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미등 방목로는 현재 관음사 등반로와 거의 일치하며, 동·서 탐라계곡에서 삼각봉 대피소 사이에 있다(그림 11). 이곳은 하천(‘서탐라골’)과 하천(‘동탐라골’) 사이에 있었던 방목지로, 일제시기에는 미입목지(未立木地)인 국유지였다.

1934년 오라리에서 마을공동목장을 조성하며 목장용지가 부족하자 개미목 일대 초생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대부받아 공동목장으로 이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일제시기 이전에도 이미 오라동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여름철 방목지로 이용되던 곳이었다.<sup>73)</sup>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이루어진 상산방목로는 우마를 올릴 때와



<그림 11> 개미등 방목로(2013. 4. 13)

73) 강만익(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08쪽.

내릴 때 이용하는 루트가 달랐다. 우마를 올릴 때는 광령리~천아오름 동쪽 기저부~해안공동목장~사제비[망채오름]~만세동산~민대가리오름 코스를 이용했다. 이 중사제비오름과 만세동산 일대가 이 마을의 주된 방목지였다. 우마를 마을로 내릴 때는 만세동산~사제비~어리목(휴게소)~광령리 코스를 이용했다. 유수암리에서는 ‘상장털’ 목장 상한선에 위치한 ‘상갓’에서 사제비오름과 만세동산 쪽으로 연결된 소로가 상산방목로였다.<sup>74)</sup>

이상과 같은 주요 상산방목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 자료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산에 소를 올렸던 목축민의 오래된 기억에 근거하여 1:25,000 지형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나 상산방목로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

<표 5> 마을별 상산방목로

상산방목마을	상산방목로
상효동·하효동	돈네코 등반로입구~썩은물통~살채기도~둔비바위~평지캐대피소~옴텅밭~남벽분기점
호근동	호근마을~중어니캐~죽제비캐~선작지왓~윗세오름~왕석밭
하원동·도순동	해당마을~법쟁이악 동쪽~영실기암 동쪽~선작지왓~윗세오름~방에오름~등터진캐
애월읍 광령리	광령리~천아오름~해안공동목장~사제비[망채오름]~만세동산~민대가리오름

## 2) 마을별 상산방목 민속

상산방목과 관련된 목축민속은 중산간 마을공동목장지대에 토대를 둔 목축민속과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중산간 지대와 상산에서의 방목주체와 방목기간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목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상산방목을 행했던 사례마을인 애월읍 광령리, 서귀포시 하효동, 상효동, 호근동, 하원동 목축민속에 대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시하여 상산방목 민속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산방목 마을별 민속의 구체성과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에

74)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이장 이종환 씨와의 면담(2013. 4. 30) 결과이다.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① 광령마을 상산방목

이 마을 목축민들은 상산에 올렸던 소를 ‘산췌’라 불렀다. 집에서 기르는 소가 아니라 산으로 올리는 소였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최종 방목지인 사제비~만세동산에 우마를 올리는 길은 험난했다. 마을을 벗어난 소들은 천아오름(해발 967m) 기저부 동쪽 길을 지나 한라산 국립공원 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길이 좁아져 가시덤불 우거진 숲속 길을 우마들이 한 줄로 올라가야 했다. 해마다 상산에 올리는 소들은 올라갔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집밖으로 보내면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길을 찾아 올라갔다.<sup>75)</sup> 광령리에서 소를 몰고 사제비 오름에 가면 점심시간이 된다. 이 오름 밑에는 샘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이 너무 차서 먹지 못할 정도였다. 점심은 ‘동고량<sup>76)</sup>’에 담고 갔으며, ‘개역<sup>77)</sup>’을 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시로미 열매도 따서 먹었다.

두~세살될 때 엉덩이에 光 또는 솜자 낙인을 하고 귀를 찢어 표시를 한 다음, 상산에 올리면,<sup>78)</sup> 인간들의 별다른 간섭 없이 상산에서 살다 새끼를 낳고 추워지면 집을 찾아 내려왔다. 그러나 소를 잃어버려 상산에서 소를 찾을 때 고사를 지냈다. 상산으로는 암소와 송아지를 함께 올렸으나, 농경용 ‘밭갈췌’는 일 소여서 상산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상산의 소와 말들은 ‘ㄱ대’(조릿대)를 먹었다. 어리목에서 사제비 오름으로 소를 올렸다. 소가 올랐던 길을 ‘췌질’이라 했다. 길이 아무리 경사가 급해도 소 한 마리가 앞장 서 올라가면 줄지어 나며지 소들도 따

75) 에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상산방목로는 2012년 11월 8일 광령1리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이다.

76) 동고량은 대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도시락 통이다.

77) 볏은 보리나 콩을 갈거나 뺀아서 만든 가루 음식물로 미숫가루의 제주어이다.

78) 상산에 소는 대체로 청명을 전후하여 올렸다. 제주시 오등동에서도 청명(한식)후 밭벼(陸稻) 파종 후 우마를 동원해 밭을 밟아준 뒤 마을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 우마에 낙인을 했다. 낙인은 사람의 인감과 같아 범원에 등록을 했다. 오등본동은 ㅍ, 간다시 마을은 ㅅ, 죽성마을은 ㅈ자를 이용해 낙인했다(오등동 향토지편 찬위원회, 2007, 『오등동향토지』, 135쪽).

라 올라갔다. 상산에는 ‘막은 다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막혀 있어 우마들을 들여놓고 ‘도’(입구)를 막아버리면 우마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목 중이던 소를 집으로 데려와야 할 때 본인의 소를 ‘막은 다리’로 들여보내 소의 목에 줄을 걸어 몰고 내려왔다. 상산에 소를 올린 목축민들은 10일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올라가 방목상태를 점검했다. 그래야 사고로 다친 소들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6월 농사가 끝나 상산에 우마를 올렸다가 10월을 전후해 각자 편한 날짜에 데려 왔다. 목축민들은 일정한 날을 골라 힘을 모아 동시에 우마들을 상산방목지로 출발시켰다. 이 마을 목축민들이 만세동산에 올렸던 소들이 남제주군(현재 서귀포시) 중문면 하원리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마을과 반대 방향에 위치한 하원마을로 내려가는 ‘쉐테’(소의 무리)에 끼여 내려가 버려 소를 잃어버린 방목자들은 하원마을로 가서 수소문해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sup>79)</sup>

## ② 하효마을 상산방목

이 마을 목축민들은 여름철 좁쌀 파종이 끝나 더워지기 시작하면 상산에 소를 올렸다. 이때가 되면 소들이 저절로 날뛰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우마를 백록담 인근의 방애오름~윗세오름 부근으로 이동시켰다.<sup>80)</sup> 상산은 고지대여서 시원한 바람(‘상산브람’)이 불고, 진드기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가을걷이가 시작될 때 소들을 몰고 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농사에 지친 소들을 서늘한 ‘상산’에 올려 쉬게 했다.

소를 상산에 올리는 날은 무더위를 피해 새벽에 일어나 서너 명씩 모

79) 2012년 11월 8일 15:00 광령1리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당시 인터뷰에는 고치훈(78세, 광령1리 1227번지), 진봉문(76세, 광령1리 1181), 양재안(89세, 광령1리 1261번지), 김장현(74세, 광령1리 1247-2), 김덕철(71세, 광령1리 1090번지) 씨가 참여했다.

80) 상산방목에 대한 면담조사는 2008년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효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주 면담자는 노인회 부회장인 정성호(72세, 하효동 193-1) 씨이며, 보조 면담자는 고성수(79세, 하효동 734-3) 씨였다. 이 내용은 『하효지』(서귀포시 하효마을회, 2010)에 실려 있다.

여 이동했다. 소를 몰고 상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돈네코 등반로를 이용했다. 현재는 나무와 풀이 길을 덮고 있으나 과거에는 소들이 알아서 길을 찾을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백록담 남쪽 아래 ‘태역’(잔디) 밭인 ‘앞갈퀴’(‘움텅밭’ 부근)에서 방목했다. 이곳에는 소들이 날라 갈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했다. 또한 풀이 있는 곳에는 요철(凹凸)이 발달해 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 소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소를 보러 올라갔다.

이 마을 동부락과 서부락은 같은 마을임에도 방목위치가 달랐다. 서부락 사람들은 ‘앞갈퀴’에서 방목했다. 이곳은 돌들이 많았으나 소의 먹이가 되는 풀들이 풍성했다. 동부락 사람들은 ‘앞갈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등터진케’를 지나면 나타나는 ‘속밭’에서 방목했다. 동부락 방목지인 ‘속밭’은 평탄한 곳이며, 태풍이 불어도 피해가 적은 곳이었다.<sup>81)</sup> 동부락에서 보면 ‘앞갈퀴’보다는 ‘속밭’지경이 마을과 더 가까웠다.

상산에 올린 소들은 한라산을 넘어 북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기도 했다. 붉은오름 근처에서도 방목했다. 이곳에도 초지와 물이 있어 소들이 저절로 들어갔다. 인근의 호근마을 소들도 함께 방목되었다. 호근마을과 하효마을은 마을간 거리가 멀지만 상산지대에서는 공동방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낙인만 서로 달랐을 뿐이다. 처서를 지나 추위지기 시작하면 소를 몰러 갔다. 소들이 스스로 집으로 걸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상산방목지로 소를 찾으러 갈 때에는 ‘곤밥’(쌀밥)과 옥돔을 준비해 가져갔다. 평소에는 ‘조팝’을 먹다가도 소를 찾아 나설 때는 ‘곤밥’을 해 갔다. 소를 찾게 해달라는 ‘고스레’를 하기 위한 목축민의 정성이었다. 만일 소를 하루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찾을 때까지 상산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임시로 잠을 잘 장소가 필요했다. 이 마을 사람들도 ‘평지케’에서 숙식했다. 이곳은 7~8명이 함께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밤에는 ‘소

81) 속밭은 성널오름과 어후오름 사이인 한라산 성판악 등반로를 따라 3.5km 지점에 위치한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넓은 초원지대로 털진달래 등 관목류가 무성한 곳이었다. 현재는 삼나무로 조림되어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해발 1,000~1,100m 일대에 전개된 고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디자인 열림, 286~287쪽).



리낭’<sup>82)</sup>을 태우며 추위를 이겨냈다. 여름철에 방목지에서 비를 만났을 때도 이 동굴에서 피했다.<sup>83)</sup>

### ③ 상호마을 상산방목

이 마을에서 상산방목은 1985년에 사실상 종료되었다.<sup>84)</sup> 소 40~50두를 집단적으로 상산에 올렸던 사람도 있었다. 상산의 초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를 팔기 위해 상산에서 기르기도 했다. 흑우(검은쇠) 또는 종모우(種牡牛 : 씨숫소)로 이용하는 외국산 브라마를 올리던 사례도 있었다. 소를 찾으러 갈 때 빨리 찾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다. 준비물로는 굵지 않은 마른 생선(‘솔라니’ : 옥돔이며 현장에서 굽는다), 양초, 향 등이었다. 이것들을 ‘hang’ (반납)에 담고 갔으며, ‘hang’는 밥을 할 때도 요긴하게 쓰였다.

상산에 ‘쇠’를 올릴 때마다 평지궤에서 한라산 남벽을 보며 고사를 지내며 방목 우마의 무사함을 기원했다. 우마를 찾으러 갈 때 평지궤, 동광암궤, 움텃밭 내창궤에서 숙식했으며, 이 중 평지궤가 가장 안전했다. 방목 중에는 ‘부랭이’(어린 수소)를 잘 잃어버렸다. 특히 다간(두살된 소), 사릅(세살된 소)은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자주 이동을 해버리거나 다른 암소를 따라 이동해 잃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양력으로 5월말부터 마을에 ‘쉬포리’(소에 달라붙는 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소들이 저절로 엉덩이를 들썩 거린다. 이때가 되면 마을사람들은 일정한 날을 정해 상산에 소를 올렸다.

상산에는 ‘꽃쇠’와 ‘꽃물’들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오래 전에 상산에 풀어놓은 우마들로, 야생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마들이었다. 움텃밭 일대에는 ‘물걸리는 내’가 있어 일단 이곳으로 말을 들여보내면 빠져나올

82) 소리나무의 제주방언으로, 참나무과에 해당하는 낙엽활엽 교목이다.

83) 서귀포시 하효마을회(2010), 『下孝誌』, 276-282쪽; 강만익(2010),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① 下孝마을의 事例』, 『濟州學』 제6호(겨울), 제주학연구소, 도서출판 세림, 80-83쪽.

84) 2012년 11월 17일 오후 3시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나루터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오세창(상효동 2302번지, 60세) 씨와 인터뷰 결과이다. 그는 자칭 산남지역 상산방목 마지막 태우리였다.



<그림 12> 등터진케 부근의 테우리  
이정표(2012. 11. 3)



<그림 13> 우마먹이인 김의털  
(2012. 11. 18)

수 없었다.

방목기간은 대체로 청명을 전후한 5월 중순부터 10월 상강일까지였다. 목축민들은 열흘에 한 번씩 상산으로 올라가 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또는 바위에 다리가 끼어 죽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낙인은 ‘平’, 8, ‘八’자를 이용했다. 상산에는 진드기가 거의 없었으나 대신 ‘쉬포리’(소의 등에 달라붙는 파리로 소똥이 있는 곳에 있다)가 있었다. 흡혈하는 진드기 피해가 없어 이곳의 우마들은 살이 올랐다. 상산에 올린 ‘쉐’는 육질이 탄탄해 질 좋은 고기로 인기가 많았다.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진드기가 없고 약초와 같은 풀들이 품질 좋은 소를 길렀다. 방에오름에서 ‘등터진케’를 연결하는 방목지에서는 테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석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이정표가 있다(그림 12).

‘평지케’에서 남벽을 바라보면 양쪽에 큰 암석 두 개가 시야로 들어오는 데 이것을 ‘성제돌’(형제돌)이라고 했다. 성제돌 역시 테우리들의 방목지 위치를 가늠하는 이정표로 이용되었다. 상산에 방목시킨 우마들은 ‘김의털’을 좋아했으며(그림 13), 조릿대 잎을 먹기도 했다. ‘등터진케’ 방목지에서 소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땅이 푸석푸석하고 작은 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발정기에 있는 수소들은 암소 위로 올라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발이 돌 틈에 빠져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풍 불 때 어린 소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때 ‘톨’ 속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했다. ‘톨’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빈 공간(트멍)을 의미했다. 구상나무와 주목으로 이루어진 나무숲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한

것이다.

#### ④ 호근마을 상산방목

이 마을의 상산방목은 이 마을 출신 소설가가 쓴 『한라산』(1990)에 등장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상산방목 목축민속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일에 방해가 되는 사릅(세살), 나릅(네살)의 암소나 송아지를 올렸다.
- 소를 산에 올리기 전에 낙인과 귀표를 했다. 이 마을에서는 許자 낙인을 했다.
- 해가 솟아 무더워지기 전에 밀림 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새벽부터 서둘러 출발해 사시(09:30~10:30) 쯤에 밀림입구에 도착한다. 길이 좁아지므로 뿔에 감았던 고삐들을 풀어 한 마리는 물고 한 마리는 끌며 올라갔다. 세 마리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두 마리를 앞세워 몰아야 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산길에 익숙한 테우리가 선두에 서고 중간 중간에 장정들이 서서 소를 몰았다.
- 서어나무 숲 중간지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밥으로는 고구마 썬 것을 섞은 메밀 범벅, 고구마 가루로 만든 돌레떡, 좁쌀 오메기, 팔을 섞은 반지기 밥 등을 먹었다.
- 점심 후 한 시간 쯤 이동하면 관목 숲에 들어서며 이곳에서 얼마쯤 오르면 나타나는 ‘족제비케’는 한라산 남녘에서 상산 초입이 되었다. 이 케를 넘어 서면 철쭉밭 사이 자갈더미가 많은 ‘선작지 마루’에서 고삐를 풀어 쫓다. ‘보섬코지’ 샘물로 내려가 땀 흐르는 얼굴을 씻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 목도 축였다.
- 가을철이 쉼을 내려 올 때 산 뒤쪽 ‘췌테’에 어울려 내려가 버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 마을의 소를 한림읍 금악리에서 찾아오는 사례도 있다. 추운 데 살아 털이 보통 췌보다 몇 갑절 길게 자라나 임자도 모를 지경이다.
- 상산에 소를 올리거나 찾으러 나갈 때 테우리들의 기본 준비물은 ‘갈잠방이’(감물을 들인 잠방이), 췌가죽 옷, ‘약돌기’<sup>85)</sup>에 넣은 식량, 지팡이 등이었다. ‘짚세기’ 위에 췌가죽 덧신을 신기도 했다.<sup>86)</sup>

85) 제주특유의 새끼줄로 엮은 배낭을 의미한다.

86) 이상 서귀포시 호근마을 상산방목 관련 인용부분은 오성찬(1990)의 단편소설인 『한라산』(고려원, 11~80쪽)에서 요약한 것이다.

## ⑤ 하원마을 상산방목

이 마을의 목축민들은 4~5월에 소를 상산에 올렸다. 대체로 10월경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예외적인 사례이나 1년 내내 소를 방목했던 경우도 있었다. 상산에서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겨울철에는 상산방목지에서 아래로 내려와 밀림 속에서 겨울을 났다. 방목중인 소들은 ‘쉐테’(소의 무리)를 따라 북제주군지역인 애월읍 더럭, 상가, 금덕, 심지어 하귀마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상산방목지에서 해안마을인 애월읍 하귀리(下貴里)까지는 지형적인 막힘이 없어 소들이 내려갈 수 있었다. 잃어버린 소들은 낙인을 보고 서로 연락을 취해 찾을 수 있었다. 상산방목이 이루어질 때 테우리(목자)들은 서로 인정이 있어서 다른 마을 소를 보면 인편을 통해 알려주던 것이 관습이었다. 하원마을에서는 낙인으로 마을을 상징하는 下元<sup>87)</sup>을 이용했으나 집안에 따라 乙, 卜, 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이 소 30여두를 방목해 판매했던 경우가 있었다.<sup>88)</sup> 말과 검은 소들을 상산으로 올렸다. 상산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갈 때 바닷고기, 향, 양초를 준비해 방목지에 있는 큰 바위 위에서 고사를 지냈다. 잃어버린 소들은 애월읍 소길리, 장전리 심지어 한림읍 금악리 마을에서 찾기도 했다. 하원마을 소들은 선작지왓, 윗세오름, 움텅밭, 등터진래 일대에서 방목했다.<sup>89)</sup>

## 3. 상산방목의 소멸과정

## 1)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지정

상산방목은 한라산이 1970년 7월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법적

87) 하원의 한자표기는 河元이나 본래 낙인은 쉬운 글자여야 하므로 이 마을에서는 河 대신에 만들기 쉬운 下를 이용해 下元이라 낙인했다.

88) 강용규(88세, 하원동 1317번지) 씨와의 면담결과이다. 그는 1976년 6월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방목하던 소가 제주도당국에 적발되어 자필로 해명서를 쓴 다음 증문면장을 통해 제주도청에 제출했던 인물이다. 현재도 생존해 있어 전화면담을 실시 했다.

89) 김기윤(75세, 하원동 419번지) 씨의 면담결과이다.

으로 금지되기 시작했다.<sup>90)</sup> 이러한 법적 조치는 가축방목으로 인해 한라산 희귀식물이 훼손되고 축주(畜主)들이 가축관리를 빙자해 국립공원으로 무단 침입해 여러 문제를 일으킴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제주도청에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방목한 축주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국가정책에 의해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상산방목이 금지되면서 상산방목 목축민속이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산방목 금지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상산방목이 계속됨에 따라 제주도청·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목축민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목축민들이 상산방목 문화를 금지시킨 법적 조치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1985~1988년에 상산방목이 제주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저절로 해소되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1985년과 1988년에 각각 촬영된 상산에서의 마지막 우마방목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 절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1976년과 1977년에 작성된 4개의 문서와 1976년 7월 10일에 작성되어 제주도청에 제출된 『復命書』에 근거하여 상산방목 목축민속의 소멸과정과 국립공원내 방목금지 조치에 따른 제주도청의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4> 상산방목 중인 소

사진 :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1985, 오덕철)에서 인용함. 구상나무 고사목과 휴지통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라산 국립공원 내 등반로 주변에서 목격한 소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15> 1988년 윗세오름 일대  
마지막 방목모습

사진 :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웅만 사진제공, 가운데 부분은 백록담 화구벽, 앞쪽 왼쪽은 윗세오름(붉은오름), 뒤쪽은 장구목으로 가는 왕석밭, 오른쪽 오름 둘은 윗방애와 방애오름에 해당)

90)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06),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각출판사, 107쪽.

## 2) 국립공원내 무단방목 가축주 전면조사

제주도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해 1976년 7월 8~9일 2일간에 걸쳐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국립공원 구역내 방목가축주 인적사항조사의뢰」(1976.7.16)<sup>91)</sup>이다. 여기에는 국립공원구역 내에 가축이 무단으로 방목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청에서 해당 축주들을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 위해 해당 관계기관에 축주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조사해 통보하라고 지시했음이 나타났다.

1976년 7월 8일 12시경 영실 앞 진달래 밭에서 검정 암소 1두, 노란 수소 1두, 송아지 1두 등 모두 3마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귀표에 표시된 우적(牛籍)이 7-5-268로, 중문면 하원리에 우적을 둔 소도 있었다. 당시 합동순찰에 참가한 관계공무원들이 제주도청에 제출한 영실등반로 주변 단속결과를 기록한 「復命書」(1976.7.10)에 따르면, 중문면 하원리소는 21림반 일대<sup>92)</sup> 영실주변에 대한 합동순찰에서 적발된 것이었다.<sup>93)</sup>

성판악 등산로 주변 단속결과를 기록한 「復命書」(1976.7.10b)에는 한라산 5.16도로 성판악 등산로에서 정상까지 이루어진 순찰에서 성판악 제2대피소에서 정상 쪽 200m 지점에서 9마리, 백록담 내부와 정상 밑에 18마리 모두 27마리가 무단방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sup>94)</sup> 아흔아홉골 일대의 단속결과를 보여주는 「復命書」(1976.7.10c)에는 아흔아홉골과 석굴암 일대, 산련표고발 적송지대에 대한 순찰에서는 적발된 우마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5)</sup>

91) 제주도청 문서번호 : 430-1464(1976.7.16), 국가기록원 문서관리번호 : BA0061356.

92)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에 있는 「한라산요준국유림반구역도」(조정)에 의하면 21林班은 1100도로에서 영실 병풍바위를 연결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93) 이 「復命書」(1076.7.10a)는 제주도청 문서(430-1464 : 1976.7.16)에 첨부된 것으로, 1976년 7월 10일에 작성된 것이다. 복명자는 제주도청 지역계획계장 강대훈, 지역 계획과 강교상, 관광운수와 강학진, 북제주군 오준수, 제주시 강덕수, 산악회 변원종이었다.

94) 이 「復命書」(1076.7.10b)는 제주도청 문서(430-1464 : 1976.7.16)에 첨부된 것으로 1976년 7월 10일에 작성된 것이다. 복명자는 농림기사 강대윤, 문화재 순시원 박성중, 양영남, 임일성이었다.

95) 이 「復命書」(1076.7.10c)의 복명자는 제주도개발국 관광운수와 정청수, 개발국 지

돈네코 등반로 주변의 단속결과인 『復命書』(1976.7.10d)에는 서귀포 남쪽의 등반로인 돈네코~정상~영실에 대한 순찰에서는 방목우마가 확인되지 못했다. 이 복명서에는 1976년 7월 돈네코 등반로를 통해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의 특정 지점 명칭으로 ‘살채기도, ‘썩은 물통’, ‘평지암(평지케)’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sup>96)</sup>

관음사 등반로 주변에 대한 『復命書』(1976.7.10e)에는 한라산 관음사 등산코스(관음사~탐라계곡~개미등~용진각~한라산정)를 따라 올라가며 확인한 순찰결과, 한라산 용진각 대피소 부근에 방목중인 소 17두를 발견해 국유림 밖으로 하산조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97)</sup>

이상과 같은 『復命書』 기록들을 통해 1976년 7월에도 상산방목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당시 적발된 국립공원 내 방목우마에 대해 의법조치하거나 국유림 밖으로 추방하는 조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3) 국립공원내 무단방목 가축처리

이렇게 하여 적발된 가축에 대해 제주도청이 취한 조치들은 『한라산 국립공원내 방목가축 처리』(1976.7.29)<sup>98)</sup>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합동순찰결과 적발된 남제주군 중문면 하원리 강○○에게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에 방목 중인 강씨 소유의 암소에 대해 1976년 8월 5일까지 하산조치시킴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중문면장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만일 상기 일까지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전달받은 강○○(당 50세)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를 중문면사무소에 제출했다.

---

역 계획과 문창호, 개발국 산림과 정평삼, 제주시 녹지와 임중혁, 북제주군 공보실 고상배, 남제주군 산림과 황철중이었다.

96) 이 『復命書』(1076.7.10d)는 당시 순찰자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 사무관 반장 양행수, 대원 제주도 산림과 강근호, 도지역계획과 강정희, 시문화공보실 양원수, 북제주군 산림과 유창권, 남군 문화공보실 이효권이 등장했다.

97) 이 『復命書』(1076.7.10e)는 당시 단속조로 제주도 문화공보실 문화계장 강상진, 도개발국 산림과 농림기원보 김창돈, 제주시 녹지와 농림기원보 김관우, 산악회 김창도가 등장한다.

98) 제주도청 문서번호 : 430-1566(1976.7.29).

이 문서에는 본래 하원공동목장에서 방목 중이던 강○○의 소가 1976년 6월 중순경 도주했다고 목장 간호인으로부터 연락받은 후 세 차례 이상을 산속에서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고 있던 중 제주도청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소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대한 조치를 해주면 이후 법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4) 국립공원내 무단방목가축 수용관리

적발된 우마에 대해 제주도청과 관계당국에서는 임시적인 수용관리 대책을 세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구역 내 방목가축 수용관리계획』(1976.10.29)<sup>99)</sup>에서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구역 내 무단방목 가축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으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인계받은 무단방목 우마를 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곳에 임시로 수용된 가축들은 국립공원 내에 무단방목된 우마들을 단속 공무원이 적발해 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sup>100)</sup>에 넘긴 것이었다. 수용관리 기간 중 우마 축주로부터 보호관리비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축주는 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에 관리비를 지불하고 가축을 인수해야 했다. 축우와 마필의 1일 두당 관리비 징수액은 <표 6>과 같다.

<표 6> 국립공원내 무단방목 우마에 대한 1일 관리비 징수내역

축별	규격	1일 두당 징수액		비고
		방목기간 (5. 1~11. 30)	사사기간 (12. 1~익년 4. 30)	
축우	성우	150원	300원	입식일부터 반환일까지 일당계산
	독우	50원	100원	
마필	성마	200원	400원	
	자마	150원	300원	

\* 출처 : 제주도청,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구역내 방목가축 수용관리계획』, 1976. 10. 29.

99) 제주도청 문서번호 : 430-2334(1976.10.29), 국가기록원 문서관리번호 : BA0061355.

100) 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설립된 축산조직으로, 1993년에 현재의 제주도축산진흥원으로 개편되었다.



이 사업소에 들어온 우마들은 관리카드를 비치해 사육되었으며, 수용 관리 기간 중 우마가 도난을 당하거나 도주할 경우 이 사업소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다. 보호관리 가축에 병이 생길 경우, 진료부를 비치해 치료한 후, 해당 축주에게 치료비를 부담시켰다. 천재지변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소 책임이 없도록 했다. 징수된 보호 관리비는 개량초지 사후관리, 목부 급료 및 목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이용되었다.

만일 수용·관리하는 가축이 1개월 이상 경과해도 인수자가 없을 시는 공원법, 유실물법 및 민법에 준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계인수에 따른 제반사항 및 축주의 수배, 관리비 징수, 법적 조치 등의 업무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5) 국립공원내 축우방목 전면금지 홍보

여러 차례에 걸친 제주도청과 관계당국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목축민들은 한라산 국립공원내 축우방목을 계속 했다. 이에 제주도청에서는 더 이상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의 방목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정 하에, 축우방목이 한라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언론기관을 통해 축우방목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내 축우방목에 따른 여론통보』(1977.9.24)<sup>101)</sup> 문서에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지사(제18대 장일훈)는 업무담당 부서인 제주도청 축정과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경찰국장에게 문서를 보내 한라산 국립공원구역인 해발 1700~1800m에 많은 축우들이 무단방목되고 있어 자연훼손과 등반로 손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

101)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내 축우방목에 따른 여론통보는 1977년 9월 20일 제주도경찰국장이 제주도 총무국장에게 통보(정보 2064-6385 : 1977.9.20)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제주도청에서는 1977년 9월 24일에 문서를 작성해(문서번호: 430-1834 (1977.9.24), 국가기록원 문서관리번호 : BA 0061357) 제주도청 식산담당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주도경찰국장에게 보낸 다음 국립공원 내에서의 우마방목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히 외래 관광객들에게 한라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통보하면서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매스컴을 통해 축우방목자들에게 지도계몽을 전개해 앞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방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언론을 통해 한라산 자연환경보호 및 등반로 손괴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내 축우방목 전면금지를 적극 홍보한 결과 제주지역 목축사에서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산방목 목축민속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해발 1400m이상의 한라산 상산방목지에서는 우마(牛馬)나 테우리들을 찾아볼 수 없다. 상산방목 우마들로 넘쳐나던 백록담 그리고 윗세오름 일대 및 선작지왓 초지대 그리고 ‘궤’(바위굴)와 샘들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 V. 맺음말

근현대시기 제주도 한라산 아고산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상산방목은 백록담 부근 해발 1400m이상의 환경사지에 형성된 초지대에서 이루어졌으나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금지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산방목은 한라산 해발 1400m이상에 형성된 자연환경의 산물이었음을 확인했다. 상산방목지대를 구성하는 자연환경 요소로는 백록담, 오름(축화산)과 하천(계곡), 궤(바위굴), 샘 등의 지형환경 그리고 완경사의 초지대, 구상나무, 누운향나무, 제주조릿대, 고산식물인 시로미 등의 식생환경, 여름철 서늘하고 비바람과 안개가 많은 기상환경이 있다. 이 가운데 오름, 하천, 초지대, 구상나무, 샘은 방목우마에게 그리고 궤, 시로미, 샘은 방목우마를 관리했던 테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였다. 상산방목은 초지와 물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궤(바위굴)가 삼위일체 되어야 가능했다. 상산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이 시원해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으며, 상산에 올라 방목하는 것은 산정부(山頂部)의 지형조건과 기후환경을 인식한 주민들의 전통지식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산남지역 상산 방목지인 움텅밭 방목지는 윗방애오름, 방애오

름, 알방애오름을 연결하는 장소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귀포시 하효동·상효동·토평동 목축민들의 공동방목지였다. ‘선작지왓’ 방목지는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고원 초원지대요, ‘산상의 정원’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노루샘과 ‘탐괘’가 있으며, 서귀포시 하원동, 월평동, 도순동, 호근동 주민들이 방목했던 곳이다. 산북지역 상산 방목지인 개미등과 가메왓 방목지는 제주시 오라동 주민들의 목축지로 이용되었다. 사제비오름과 만세(수) 동산, 민대가리오름, 장구목오름을 연결하는 방목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주된 방목지였다. 백록담 방목지와 윗세오름 방목지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군 지역 우마들의 공동방목지였다. 윗세오름 일대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의 주요 공동방목지였으나, 과거 남·북제주군 지역 우마들의 집합장소이자 태우리들의 만남 장소였다.

셋째, 상산방목지의 상산방목로는 목축민들이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갔던 길인 동시에 해안과 중산간 지역의 목축문화를 상산방목지대로 옮기는 통로였으며, 목축민(테우리)들과 우마의 이동루트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 길은 ‘쉐 올리래(소 올리기)’-‘쉐 보래’(소 관찰하기)-‘쉐 내리래’(소 내려오기) 가는 길이였으며, 오늘날 한라산 등반로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움텅밭’으로 가는 방목로에는 ‘마치동산’~‘동광암괘’~‘존내’~‘움텅밭 코스와 현재의 돈네코 등반코스가 있었다. 선작지왓으로 가는 방목로는 하원마을공동목장~법쟁이악~선작지왓 루트가 있었다.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은 관습적으로 천아오름~해안공동목장~사제비오름[망체오름]~만세동산~민대가리오름, 오라동 주민들은 현재의 관음사 등반로를 이용해 우마를 개미등과 가메왓 방목지로 올렸다.

넷째, 상산방목과 관련된 목축민속으로 방목루트 개척하기, 봄철에 행하는 낙인과 이표(耳標)하기, 잃어버린 가축 찾기를 기원하는 목축의례 등이 있었다. 광령리 마을에서는 光 또는 唵, 토평마을에서는 ‘平’, 상효마을에서는 8, ‘八’, 하원마을에서는 下元이라는 낙인을 했다. 청명이후 6월 여름철 농작물(밭벼, 조 등) 파종이 끝나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상산으로 농우들을 올려 방목했다가 기온이 내려가 풀이 시들기 시작하는 상강을 전후해 몰고 왔다. 일에 방해가 되는 사릅(세살), 나릅(네살)의 암소나 송아지를 함께 올렸다. 상산에 올리는 날은 무더위를 피해 서너 명

씩 모여 새벽에 출발했다. 호근동 주민들은 상산으로 가는 도중 고구마 썬 것을 섞은 메밀 범벅, 고구마 가루로 만든 돌레떡, 좁쌀 오메기, 팔을 섞은 반지기밥 등을 점심으로 먹었다. 상산의 초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흑우(‘검은쇠’)가 방목된 사례도 있었다.

상산은 고지대여서 시원한 바람(‘상산바람’)이 불고, 진드기가 거의 없는 곳이어서 방목에 유리했다. 이곳의 우마들은 김의털, ‘ㄱ대’(조릿대) 등을 먹었다. 추운데 살아 털이 보통 소보다 길게 자랐다. 소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소를 보러 올라갔다. 가을철 소들이 스스로 집으로 걸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일정한 날에 집으로 몰고 왔다. 소를 찾으러 갈 때 테우리들은 ‘짚세기’ 위에 소가죽 덧신을 신기도 했으며, ‘갈잠방이’(감물을 들인 잠방이), 소가죽 옷, ‘약돌기’에 넣은 식량, 지팡이 등을 준비하고 떠났다. 소를 찾으러 갈 때 빨리 찾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목축의례를 행했다. 쌀밥, 굶지 않은 마른 생선(옥돔), 양초, 향 등을 ‘향고’(반납)에 담아 방목지나 궤에서 고사를 지냈다. 방목을 위해 상산에 소를 올릴 때도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확인된다. 백록담 남쪽에서 방목 중이던 하원동·도순동·호근동·상효동 소들이 백록담 북쪽으로 이동하는 ‘쉐테’(소의 무리)를 따라 에월읍 광령리·장전리·상가리 그리고 한림읍 금악리 마을로 내려가는 사례가 있었으며, 반대로 백록담 북쪽 마을 소들이 남쪽인 하원동, 호근동 등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낙인글자로 마을을 확인해 서로 연락을 취해 인계했다.

다섯째, 상산방목은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가정책에 따라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방목되다가 적발된 우마들을 일정기간 수용해 관리한 다음, 해당 축주에게 돌려주면서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방목을 하지 말 것을 계도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내 방목금지 계도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을별로 관습적으로 행해진 상산방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후 198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했다.

이상과 같이 근현대 시기 한라산 상산방목 목축민속과 소멸과정을 다룬 이 글은 상산방목에 대한 연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 마을간 상산방목로를 정확히 복원함과 동시에 방목루트별 구체적인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상산방목의 역사성과 함께 목축민속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마을간, 방목자간 목축민속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명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지금까지 근현대 한라산 아고산지대에서 이루어졌던 상산방목이라는 목축민속에 대해 검토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인 윗세오름 부근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고 소와 말 방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진행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민속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주축산진흥원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우마를 여름철 한라산 정상부에 방목시킬 경우,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이색적인 장면이 되어 오히려 중요한 문화역사 경관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승일(1993:146)의 주장처럼, 소 몇 마리가 풀을 먹으면 얼마나 뜯어 먹으며, 말 몇 마리가 땅을 밟으면 얼마나 밟겠는가. 그동안 상산방목이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으며, 심지어 짙은 안개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방목우마들이 심리적 도움을 주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 정상부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가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더욱 아름답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강만익(2005), 『전통사회 제주도의 목축지명 읽기』, 『제주역사문화』 제13·14호, 제주도사연구회.
- \_\_\_\_\_(2010),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 ① 下孝마을의 事例』, 『濟州學』 제6호(겨울), 제주학연구소, 도서출판 세림.
- \_\_\_\_\_(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 고광민(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 고재환(2011),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 공우석(1998), 『한라산 고산식물의 분포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한지리학회.
- 광령1리(1990), 『光令略史』, 재승인쇄사.
- 金仁顯(2006), 『韓國 濟州 歷史·文化硏리學』(下), 西歸浦文化院.
- 김찬수·김문홍(1985), 『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
- 김창민(1992), 『월평마을』, 나라출판.

### 2. 논문

- 김태호(2001), 『한라산 백록담 화구저의 유상구조토』,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3호(통권 86호), 대한지리학회.
- \_\_\_\_\_(2006),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나지의 확대속도와 침식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 \_\_\_\_\_(2010), 『한라산 아고산대에서의 사면 물질이동』,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 김희정(1895), 『漢擎山記』, 『海隱文集』, 백규상 역(2012),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擎山記)』, 『제주발전포럼』 제41호, 제주발전연구원.

- 남원읍 하례리 마을회(1999), 『下禮마을』, 서울문화사.
- 납읍향토지편찬위원회(2006), 『납읍향토지』, 세림원색인쇄사.
- 노형동지발간위원회(2005), 『老衡洞誌』, 반석원색인쇄사.
- 서귀포시 하효마을회(2010), 『下孝誌』.
- 안승일(1993), 『안승일 사진집 한라산』, 도서출판 호영.
- 안중기·김태호(2006),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소유역의 물수지』, 『대한지리학회 지』 제41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 양송남(2010), 『양송남의 40년지기, 漢拏山 이야기』, 태명인쇄사.
- 오동동 향토지편찬위원회(2007), 『梧登洞郷土誌』, 태화인쇄사.
- 오성찬(1990), 『한라산』(고려원 소설문고 085), 고려원.
- \_\_\_\_\_(2002), 『고근산 기슭마을 호근·서호리』, 도서출판 반석.
- H. 라우텐자흐 지음(1945),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옮김(1998), 『코리아 I』.
-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2008),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 정지용(1941), 『백록담(白鹿潭)』, 문장사.
- 제주도(1994), 『韓國의 靈山 漢拏山』,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06), 『한라산의 등반·개발사』(한라산총서 제6권),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디자인 열림.
- 제주학연구소(2010), 『濟州學』 제6호(겨울), 도서출판 세림.
- 좌동렬(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泉靖一(1971), 洪性穆 譯(1999), 『濟州島』, 제주시 우당도서관.
- 하원마을회(1999), 『하원향토지』.
- Lambert M. Surhone, Mariam T. Tennoe, Susan F. Henssonnow(2010), *Transhumance*, Betascript publishing.
- Daniel A. Gomez-Ibanez(1977), 『Energy, Economics, and the Decline of Transhumance』, *Geographical Review*(Vol.67 No.3),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도움주신 분 : 고치훈(78세, 광령1리 1227번지), 진봉문(76세, 광령1리 1181), 양재안(89세, 광령1리 1261번지), 김장현(74세, 광령1리 1247-2), 김덕철(71세, 광령1리 1090번지), 정성호(76세, 하효동 193-1), 고성

수(83세, 하효동 734-3), 오세창(60세, 상호동 2302), 현성화(73세, 호근동 1753). 강용규(88세, 하원동 1317), 김기윤(75세, 하원동 419), 이종환(현재 애월읍 유수암리 이장), 신용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사진제공).



Abstract

## Stock-farming folklife and extinction of Mt. Halla sangsan-graze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Kang, Man-Ik\*

Hallasan(1,950m) was designated a national park in 1970, also designated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 2007. This mountain was a base that influenced to unfolding of various history and daily lives and breeding-culture of Jeju peoples.

This paper is an historical-folklife study about Sangsan-graze(上山放牧) of pastoralists get done in Mt. Halla of Jeju region at modern and contemporary. Sangsan-graze was stock-farming form that done near Baengnokdam(白鹿潭) 1400~1950 meters above sea level that is the highest pasturage region in Korea and it was a traditional stock-farming culture of Jejudo pastoralist.

Sangsan-graze place of Mt. Halla divide into Witsae-oreum (윗세오름, altitude 1,700m), Seonjakjiwat(선작지왓), Umteongbat(움텅밭) that is located in the south of Baengnokdam and Sajebi Hill(사제비 동산, altitude 1,423m), Manse Hill(만세동산, altitude 1,606m), Gaemideung(개미등) the whole place located in the Northwestern area.

Generally, grazed villages in Sangsan-graze place were located in the North and South of Jejudo, for example, 'Dong(洞)' region and

---

\*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Aewol-eup Gwangryeong-ri of Jeju-si and from Jungmun-dong to Hahyo-dong and Namwon-eup Harye-ri of Seogwipo-si.

Pastoralists of Jeju region were high up horses and cattle to near Baengnokdam as landmark set aside a regular day, after seeding of early summer was finished. Unpaved and primitive pasturing route existed to interlink from hamlet to Sangsan-graze place. Sangsan-graze was constituted to seasonal pasturing that is transhumance(移牧) in Southern Europe.

Sangsan-graze need to grassy place, water, 'gwe'(궐). Grassy place and water(for example, Sajebi and Bang-ae-oreum, Baengnok Springs) was vital element for survival of horses and cattle, 'gwe' was a small rock cave, temporary dwelling place of 'Teuri'(牧子) whom care for horses and cattle. In Sangsan-graze place, all pastoralists of coast and the middle-mountains hamlet can graze no charge.

Generally, in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 before and after the Cheongmyeong(清明, 4월5일), Jeju-teuris(pastoralists) were high up horses and cattle to near Baengnokdam, and at that time the Sanggang(霜降, 10월23일), they descend a mountain horses and cattle from Sangsan(上山) to coast and the middle-mountains hamlet. Sangsan-graze was proceed doing high up, grazing, making horses and cattle come back.

Jeju-teuris(pastoralists) were offering a sacrifice to spirits for find that lost horses and cattle and make a start grazing, prepare for dry a tilefish and candle. When high up horses and cattle, Jeju-teuris were doing brand iron and ear tag.

After Mt. Halla was designated a national park in 1970, by national power, Sangsan-graze was prohibited wholly. In consequence, traditional Sangsan-graze folk was disappeared completely, Jejujoridae(제주조릿대)was expanded to breeding and as alpine plant, the Siromi(시로미)'s habitat was threaten.

Key Words : Mt. Halla, Hallasan National Park, Sangsan-graze(上山放牧), stock-farming folklife, pasturing route, teuri(牧子), branding iron(烙印)

교신 : 강만익 690-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 26, 502호  
삼양2동, 한라하이츠빌 2차  
(E-mail : [jejuteuri@naver.com](mailto:jejuteuri@naver.com), 전화 : 010-4199-2071)

논문투고일 2013. 5. 11.

심사완료일 2013. 6. 20.

게재확정일 2013. 6. 25.